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東拓所有地의 作料加徵

一

東萊郡沙下面에 잇는 東拓所有地에는 收穫豫想이 昨年보담 別로 增加된것도 업슴에 不拘하고 每斗落 約三斗의 作料를 올리엇다고 한다。同土地는 이미 昨年度에 잇서서도 二斗가량의 作料를 올리엇스므로 겨오三年間에 五斗以上 作料를 올리게 되세음이다。勿論 地主들의 作料加徵은 그다지 稀貴한 消息이 아니나 위선 今年五月以來로도 天潮의 熊本農場과 進永의 迫間農場等이 作料加徵을 行하다가 作人들의 反對를當하야 一時의騷亂을 이르킨일이 잇섯다。萬一 大農場以外 中小地主들의 作料加徵을 計算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枚擧키 어려울만큼 그數가 만흘것이다。그러나 東拓은 그會社의經營方針으로 보아서 作料의 徵收가 大端한 項目도 아니려니와 더구나 그會社의 組織으로 보아서 半官半民으로 되어 잇는터다。그러한 東拓으로서 無理한作料加徵을 부려 一個人의 農場과 더부러 農民들의 反感을 集中시키고 잇다는 것은 東拓을 爲하야서도 取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二

오즉 今番의 東萊沙下面뿐이 아니라 일즉이 各處의東拓所有土地로부터도 作料加徵以外 其他條件으로 因하야 農民과 對立된 일이 드믈지 안하얏다。今春 龍仁一帶의 三千餘作人에게 對하야 土地賣却의 準備를 理由삼아서 作權을解除하얏든것도 그조흔例의 하나다。上記龍仁事件과가튼것은 賣却의準備를 爲함이라고 하니 더 말할것이 업고 또 그以外에라도 실로 不得已한境遇아래 農民과 對立되는일도 잇다는것을 잇지안는다。우리는 決코 東拓만을 攻擊하기에 汲汲한것은 아니다。그러나 今番의 作料加徵은 아모리 好意로 보려하야도 보기어렵지 안한가。設使 今年의收穫豫想이 昨年보담 얼마間 늘엇다기로니 겨오三年間 五斗以上의 加徵이란 넘어나 苛刻한徵收가 아닐까? 勿論 東拓에서는 農監이나 看坪人의報告를 밋고서 作料를 決定하는것이다。그 責任의太半은 奸細한 農監乃至看坪人에게 잇슬찌도 모른다。그러나 東拓으로서인들 그 責任을 全然 벗어버릴수야 어데잇는가。적어도 그러케 農監이나 看坪人을 監督하지 못하야 奸細한 行動을 하게한데에라도 責任이 잇슬것 아닌가。

三

總督府當局에서는 疲弊한 農村의 救濟對策으로써 小作令을 發表하얏슬뿐이 아니라 그 小作令에依한 徹底한 作人의保護를 도모한다고 한다。小作令의實施는 아즉도 날이 아튼만큼 그實績을 볼서부터 따지기는 어려우나마 無勢力한 農民에게 對하야。한힘이 될것만은 疑心치 안는다。그런데 半官半民의 東拓으로서 無理한作料加徵을 行한다면 農民들의 誤解를 招致하지 안켓는가。總督府의農村救濟策을 爲하야서라도 그와가튼行動은 삼가는것이 올치 안할까。그뿐이아니라 東拓의作料加徵을 조흔 標本으로삼아 續續 作料加徵을 行할地主들이 업마는지 잇슬것이다。東拓의今番加徵은 어느點으로 보나 贊成하기 어렵다。農監이나看坪人들의 報告만을 미더서 作料加徵을 行하지 말고 좀더 大局的 見地에서서 農民들의反感을 避하는것이 조치안흘까고 밋는다。

北中의肅淸工作 第二段階에進入

二三日中에三項의抗議提示

駐中日本軍當局에서

【北平二十七日發電通】確聞하건대 日中駐中軍當局은 北中의 日中關係明朗化와 政治的安定을 强化하기爲하야 이兩三日中에 中國側에 對하야

一、滿洲事件의 善後措處

一、北中에 介在해잇는 國民黨과 藍衣社潛行分子의 徹底的掃蕩

一、其他排日的分子의一掃

를 期할 强硬抗議를 提示하기로되어잇는데 去六月의 北中事件後 日本當局은 中國側의 北中協定嚴守를 監視하는同時에 繼續的으로 排日分子의 潛行에 對하야 警戒하고 이미 各種의 確證을 暴하게되엇으로 이에 北中肅淸工作第二次發展의 段階에 들어갈모양이다

北中政權確立運動 漸次로具體化

【北平二十七日發電通】北中의現狀打開에 關하야 過般 上海武官會議에서 强力한 北中政權樹立을 希望하고 北中明朗化의第二段工作에 들어가기로 意見이 一致되엇는데 高橋北平武官은 右決定에 基하야 二十六日 平津衛戍司令宋哲元氏를 訪問하고 氏의 決意를 確探한바잇섯다 그리고 宋哲元氏는『北中各省의 人民이 一致하야 自治政權樹立을 要望하면 구타여 南京政府의 意向如何에 不拘하고 斷乎한 態度를 取하겟다』는旨를 表示하엿다고 解釋되는 點이잇서 香河에서 突發한 農民運動과 全혀 別個의 問題로 北中政權運動은 相當히 뿌리기픈 힘으로써 內燃하고잇서서 漸次 具體化될것으로 信憑되다

河北省內各地 再次動搖의形勢

【北平二十七日發電通】河北省農民自治를 標榜한 農民首腦者는 自治運動이 香河縣一個所에 끗치고 他處엔 波及하지아니하엿기때문에 香河事件은 別個問題로 單獨解決에 當케하는同時에 他縣에 向하야 猛烈한自治運動을 開始하엿다 이에 對하야河北省當局은 全力을 擧하야 事件의 再發防止에努力中인데 農民團은 그聲援網을 돌코租稅輕減運動을 省內各縣에 起하야二十七日朝來 再次省內各地에 動搖의 兆를 보이기始作햇다

李王大妃殿下 喪中御慰問御禮言上

尹澤榮侯爵歿去로 去二十六日 李王大妃殿下께 對하야 天皇 皇后兩陛下께서와 皇太后陛下께로부터 喪中御慰問으로 御菓子一折을 御下賜하신데 對하야 同大妃殿下께서는 篠田李王職長官을 御使로 二十八日 午前十時 御禮言上을 總督府에 御申請하섯슴으로 總督府에서는 即時 宮內大臣에게 右執奏方을 電請하엿다

佛國受諾決定 海軍會議招請을

【巴里二十七日發電通】佛國政府는 英國政府의 海軍軍縮會議招請을 受諾하기로 決定하엿는데 正式으로 同會議의 性質及範圍에關하야 英國政府의 專門家와 豫備商議를 行하야 會議의 大體의 要領을 이더둘 必要가잇다하야 倫敦에 外務省及 海軍省으로부터 專門家를 特派하기로되어 그準備에 着手하엿다고 確聞한다 그리고 右豫備商議의 主要한 目的은 同商議에依하야 現在及 將來 歐州全政局에 動搖又는 紛亂을 興하는일이업기를 期함에잇다 特히 佛日政府에서는 佛伊海軍均勢問題及 米國을 目標로하는 日本의 主張 即 海軍力의 最高限要求等에 對하여는 今回의 會議는 討議의 時期가 안이라하야 適當한機會에 主催國인 英國政府에 提議할 方針이다

六中全會압두고 上海의物情騷然

蔣氏江南一帶에大軍을集中

日中開戰說等流布!

【上海廿八日發電通】六中全會議를 앞두고 蔣介石氏가 江南一帶에 集中한 軍隊는 第五十七師를 根幹으로 그兩翼에 第三十七 第八十七兩師를 配置하고 其他福建十九路軍一萬 中央軍中 가장精銳을 자랑하는 特科部隊를 加하야 總計十萬五千의大軍과 飛行機二百五十臺인데 이때문에 各地에는 國民政府의 對日宣戰布告 日本軍의 南京攻擊說等 種種流言이 傳하야 北中農民示威運動에 關한浮說과 並行하야 上海市中은 物情騷然한 現狀이다

佛伊間默契로써 英國의眞意探索

三國和協交涉經過

英國側意見의接近을企圖

【巴里二十七日發電通】英、佛、伊三國의 和協交涉經過에 對하여는 佛國外務當局은 極度의沈默을 守하고잇는데 이에反하야 巴里의諸新聞의 錯雜하고 또猫目과가티 變하는 세세이슈낼한報道와並行하야 混沌한 形勢를 呈하고잇다 二十七日 가장 信憑할만한側에서 確聞하면 라발佛首相으로부터 英國에 和協試案을 一括하야 送付하고 英國으로부터 回答을 기다리고 잇다는것이 最近의 情勢이다 그리고 英國의回答이 假令 交涉의 中心點에서 어긋난다고 하드라도 決코 停滯라든가 決裂이라는 段階에는 逢着하지안흐리라는것이 判明되엿다 佛國에서 英國에 移牒된 和協試案의 內容은 체루치伊大使와 라발佛首相間의 個人的意見交換이라는 形式을取하고잇는데 뭇솔리니伊首相과는 일부러 直接關係가 업는듯한 態度를 表示하고잇다 萬一英國이 이에 接近하는形勢를 示現하면 其時에 비로소羅馬에 移牒하야 伊首相의 考慮를求하기로順序가 되것이라고 解釋되다 그리고 右案의骨子는 去八月 英佛伊巴里會議에서 伊太利案과 大差업고 伊太利大使가 關與하야 作成한것이以上 伊首相의 意圖와 甚한 距離가잇는것이라고는 思하지안는다 따라 聯盟도 에디오피아도 受諾할수잇다고 생각한다 英國側의意向에서 말하면 決코 妥當한解決策이라고는 認定하기困難하고 英國의 對佛國回答의 時期가 和協成否의 分岐點으로 가장重大視할것이라한다 그리고 八方에思惑를繼續하는 英國外交當局은 聯盟制裁委員會의 再會合을 三十一日에앞두고 다시 英國中心의 最重要問題인 總選擧를 十一月十四日에 앞두고잇는今日 갑작이三國和協交涉을 最後의局面으로 모라넛는 外交方針을 取하리라고는 容易히 想像할수업는바이다 伊太利가 리비아減兵을 行하엿슴에도 不拘하고 地中海의艦隊移動을 遷延하고 잇는것으로보아 英國이 어느程度까지 새로운對策을 取할는지疑問視되여잇다

米穀自治管理案 來議會에提出

米穀顧問會議서諒解求得

【東京電話通】前議會에 提案한米穀自治管理法案外二法案에關하야 農林省에서는 衆議院의 修正案을 中心으로한 新法案을 來議會에 提案하기로되엿슴으로 二十八日 米穀顧問會議에 그諒解를 求하야 來十一月六日 午前十一時부터 米穀對策調查會를 首相官邸에서 開催하고 此를附議하기로할이다

檀君과開天節

"弘益人間"의新高調

安在鴻

×

十月二十九日은 舊曆十月三日이니『開天節』이라고 일컷는 朝鮮自來의『十月상人달』의 記念하는 祝祭日로 되어잇다 即 朝鮮史上 近世流의 民族國家의 獨自的인 久遠한 出發點을 이루신 檀君王儉께서 그開創의業을 세우신 갸륵한 날로 이미 史書에도 실렷고 또는 뿌리깁흔 一般의 民俗으로 끈힘업시 傳承되어오든 名節이다 어제의『한글날』이 風土特殊한 民族文化의 確立過程에서의 劃期的인 勳業의記念날이라고하면 오늘은 이보담 압서서의 上迹 獨自的인 出發의 象徵으로서의 記念날이 되는것이다 일즉 每年이날이면 그檀君追慕의 現代的인 意義와 및 當面해서의 感想을 表出한바 잇섯지만 이제다시 一筆을 이때문에잡는다

×

晩近 一部政事家的 學者群에 依하야 檀君의存在를 懷疑 혹은 否認하는편도 적지안코 現에 그 史書가 行世하는事情이나 그러나、이것이 一片의 偏見인것은 두말할을要치아할바이오 吾人의 綜合的인 諸硏究에依하면 農耕의生活手段이 人民의定住와 및그文明의 初期를열든 男系中心의 種族國家를 形成하든時代에서 封建的인 機構의 中央의總攬者로서의 太祖的인 地位를 昂揚케하엿슴 檀君의 歷史的地位가 가장明白한것으로새로이 그보담도 압서서『聖母時代』로서 代表될 部族聯合時代以前의血族 혹은氏族의 女系中心의 社會와 및 그簡素한 全貌가零碎한文獻上으로도 論證또는推斷되을 알것이니 이는 어떠한 政治的意圖를떠나 다만純粹한 歷史社會學的 吟味와 考察만으로도、甚大한 興味와價値를 認識할者이다(그詳細는 朝鮮日報 昭和五年 一月三十一日附以降 拙稿『朝鮮上古史管見』第三、四、五『聖母時代』同第六十三『檀君時代』同十四——十六『檀君時代小觀』『新朝鮮』誌五月號拙稿『檀君論과殷箕子抹殺論』。 拙著『白頭山登陟記』中『天地』篇等參照)

×

檀君께 關하야 吾人은 이지음에 벌서그煩說의 必要를느기지안는다 그러나 檀君의皇考로서『在世理化』의 開祖를이루신 桓雄天王의 三千團部로서 太伯山頂의 下降하섯다는 神話化한 境地는 全혀『弘益人間』하는 大道와 大願에서出發 繼承및發展한것이니『弘益人間』그것이 自己犧牲이자 即自己發展의 理念的標幟인것이오 相互扶助와 社會協同의永遠不變할 指導原理인 者이며 그리하야 곳 道德的인 人生觀이오 또當爲論的으로 推進되는 要約된 社會觀인 것이다即『弘益人間』그것은 現代에서도 民衆 大衆! 그리하야當面過程에서는 結局의 民族人으로서의 社會에 存立하는 意識이오 念願으로 되는 것이다 쉽게말하자면 各層의 各方面의 각각 그社會的그處地를 달리한 모든사람들이現下過程에서『各길로서한곳에』! 의 口號와함께 이『弘益人間』하는 一念으로 專心前進할만한바이다 그럼으로 오늘 이날의 文化的意義는 大部가 이趣意의 究明에 잇는것이다 即그文化史的 再認識과 및道義上의 再高調에 잇는것이다 天下에 大道가 잇스니 그 方便은 自己犧牲이오 그目的은 自己確立 및그擁護發展이라 이에 因하야 團結이 잇고 力量이 잇고 成就가 잇는것이니 今古東西、左右各界의 사람들이 모다 각각 여기서 어들바 잇슬것이다 그리고 檀君王儉으로 神熊續婚의 아들이신것을 記한바 매우 神話說話的인 者 잇스니 그歷史科學的의 解說은 차라리 時急치안흔 別問題로 두고 神性에서 互愛共助의 人生의 韓眞性이 認識되며 獸(熊)性에서 奮鬪猛進의 征進性을 把握할수잇는것이라 이는 아울러 吟味 宣揚함즉 한者이다

×

歷史發展의 裡面에잠긴 不滅의 久遠性이 잇나니 全時代에 通하야 항상 最善또最大한 匡救의意圖를把持케하는 人類의道義的衝動 그것이오 이를만일 檀君을通하야 본다면 번시『弘益人間』의 大願인것이다 그러나 歷史發展의 階段性이 잇나니 各時代의 推移하는 로막로막에는 반드시 一度性的 또特殊的 政策對策이란者잇서 그들의『모멘트』에서 適用되는것이다 理路가 매우 平常한바이나 구타여 饒舌코저 안는다

—(끗)—

西北朝鮮六道에對한 明年計畫案成立

冷害等對策協議會終了

西北朝鮮六道에잇서 冷害及 高地帶作物對策協議會는 去二十五日以來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總督府、西北朝鮮六道 各關係官이 出席하야 愼重協議를 續行하엿는데 昨二十七日은 水原農事試驗場을 視察하고 今二十八日에 最終日의 協議가 進行되엿는데 總督府諮問案에 對한 關係六道로부터의答申은 全部 提出되여

一、耐冷性作物의 獎勵指導

一、同優良品種의普及

一、家畜의獎勵

一、各種試驗施設計畫

等에 大略 一致되여잇는데 各道가 가장 現地에即한 具體的計畫案을 樹立하고 잇슴으로 明年度부터 地方費로써 各其實施하기로되여 總督府에서도 右各道의 具體的意見及 計畫에 基하야 明年度에 新機關을 設置하야 西北朝鮮의 新境地開拓을 指目하는 綜合的 恒久案을 作成할터인데 이리하야 四日間에 亘한 朝鮮最初의 冷害對策協議는 有終의美를 收得하고 大體로 終了를 告하엿다

夕刊後市況・廿八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九八〇〇	(不變)
鐘新	一四二二〇	(三〇低)
日產	八〇五〇	(不變)
東新	一六三五〇	(二〇低)

◆橫濱 生絲 後引◆

當限 九九五〇〇 先限 九六六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七三〇 先限 六八四〇

朝鮮敎育會總會

第十三回 朝鮮敎育會總會는 二十七日 午前九時부터 城大講堂에서 開催하고 全朝鮮敎育會代表約四百名이參集 總督府로부터 今井田會長 渡邊副會長 大野總務部長以下 關係職員 來賓으로 富永京畿道知事 伊達京城府尹等 臨席으로 開會하야 會長의敎育勅語奉讀 式辭朗讀 總督告辭의 朗讀이잇슨後 國體明徵徹底에關한 總督府의 諮問案인『時局에 鑑하야 國體觀念의 涵養振作上 一層適切한 具體的方策如何』를 議題로 岩村視學官의 說明과이에對한 答申이잇슨後 委員附托으로하고 午後一時부터 城大校庭에서 第二回敎育殉職者慰靈祭를執行하엿다

六中全會豫備會議流會

【南京二十八日發聯合】中央常務會議는 二十八日午前九時 緊急會議를 開催하고 六中全會準備工作에 對하야 協議할터이엇는데 各地反中央派代表百五十名이 二十八日早朝 突然南京中央黨部에 殺到하야 六中全會 欠席委員補充으로 中央이 御用委員六十名을 指名한것을 糾彈하야 黨部首腦部에 質問하엿다

一事一言

長白山人

朝鮮語文禮讚(二)

朝鮮말과 글은 決코 어느말과 글에 지지아니하는것이다。비록 五六百年동안 知識업는先人들의 손에 漢文化의 惡影響을 밧앗지마는 그러면서도 語彙가 豐富함으로 보거나 表現力이 精確하고 自由로움으로보거나 또 韻律이 流麗함으로보거나 世界 어느 말보다도 지지안는터이다。高級한 精神文化의 表現으로 보더라도 朝鮮말에는 아직도『하나님』『검』『되』『올흠』『그름』『사랑』『참』『어엿비녀김』「나라」『마음』 그것(時代社會)가 다른 말이 남아 잇슴은 朝鮮말의 자랑일뿐더러 또한 朝鮮文化의 자랑이다。高句麗의 古墳이나 新羅의美術、高麗磁器가 朝鮮의 자랑이 아님이아니지마는 朝鮮말이야 말로 이모든 자랑의 어머니다。朝鮮말이 豐富하고 完備함이 어떠한 程度나하면 世界 어떠한 높고 어려운 思想이라도다 表現할만하고 더구나 우리네朝鮮人의 思想과 感情은 朝鮮말이 아니고는 表現할수업스리만하다。近五百年前에 벌서 支那와 同度의 經典을 朝鮮말로 옴기엇거니와 오늘날의 朝鮮말은 비록 朝鮮固有의 말은 줄어다하더라도 西洋語原의 漢字語彙를 吸收同化함으로 말미암아 古代經典을 飜譯하던 때보다도 比較도 안되게 더 豐富하게되엇다 朝鮮말은 앞으로도 內的生長과 外來語의 吸收同化로 날로 豐富하게 되리니와 今日의 現狀으로 보더라도 世界의 가장 發達된 말中에 하나다。

하물며 그 글에 이르러서는 簡易하고도 豐富하야 거의 人類가 發하는 모든 소리를 記寫할만한 完全性을 가진것임에랴。

이 글을 가지고 이 말을 記寫할 때에 우리는 가장 높고 깁흔 宗敎、哲學、文學의 用語가 되기에도 아모 不自由가 업슬뿐더러 그 微妙纖細한 情調의 明暗高低를 表現하기에 이 말아니고는 할수업는것이다。

香河事件遂解決

【北平二十八日發聯合】多田商震兩氏數次會見으로 農民自治運動의 解決策은드듸여發見되여 香河事件도 昨日武宜亭의 天津入으로終焉을告하얏다

內蒙獨立하야 大元國建設?

【北平二十八日發聯合】百靈廟에서온消息에依하면 德王雲王은大元國을建設하야 內蒙獨立을決定하얏다고傳하야 各方面에一大衝動을與하고잇는데 아즉은確報가업고 在北平의蒙古王侯는그眞相을알고저 積極態度를取하고잇다 日本의 主張

農民自治運動 龍頭蛇尾로終了

【北平廿八日發電通】河北民衆自治라는 일홈밋헤 武宜亭이引率한 農民團이 香河縣을 占領한後 省內各縣에 飛火되여 農民의 一齊蜂起가 實現될 形勢를보이고잇드니 右는 一部煽動者의 宣傳又는 計劃에 不過하다 特히河北省南部의 威縣 北平天津間의 安次縣 其他의 地方이 農民에게 占領되여 民衆自治를 宣言하는等의 報導는 單純히 一部机上의 計劃을 事實로 報道한것으로 同地方은 何等의 變化가 업고 完全히 治安이 維持되여잇는것이 判明되엿다 大運動은 全然 龍頭蛇尾로 끗치고말엇다 軍으로서는 今後 如斯한 側面的 小策動을 排擊하고 大連會議及上海武官會議의 決定에 基하야 北中明朗化에 必要한 第二次肅正工作及 北中政權樹立促進의大方針을 向하고 邁進하리라고觀測된다

蔣氏借款成功

五全大會操縱費用

【上海廿八日發電通】蔣介石氏는 六中全會議及 五全大會操縱費用으로 上海中國銀行團으로부터煙草稅를 擔保로 三千萬圓의借款에成功한것이 判明되엿다 右借款은 처음 上海英米兩煙草會社에對하야 煙草生產稅前納形式으로 借款을 申請하엿스나 拒絕을當하고 不得已 中國銀行團에交涉하야 드듸여成功한것인데蔣介石氏는 이巨額의資金으로써西南派打倒 閻錫山氏懷柔 韓復榘氏懷柔等 反蔣軍閥軟化에 要할政治的費用에 充當하는外에 六中全會議에當하야示威書目的으로 目下上海 南京 蘇州 杭州等地에 集結하여잇는 約十萬의大軍의軍費에 充當하리라고한다

KODERA

高貴藥

登錄商標

醫學博士推奬

EBISB

魚乙杉

○本品販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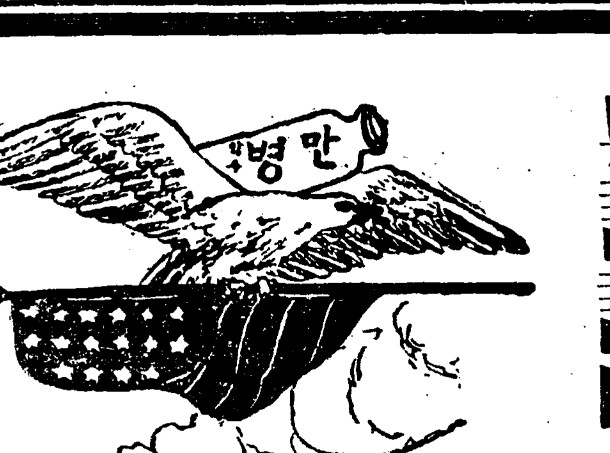
一、日本臺灣、中國、鮮內十三道

二、藥効顯著로禮狀感謝狀殺到

定價金一圓九十錢

藥効顯著

輿論證明



EBISU

萬病藥水

만병약수

特別製劑

옴약	에비수疥瘡膏
皮膚藥	보재고
感冒藥	金鷄納
肺病藥	萬病散
胃腸藥	비수사로ー루

萬病藥水 效力

매독、감창、갑상선종、멍울선대、동맥경화증、동맥류선、류마질사、종증、간정경화증、수은중독、오랜기침、신경통、풍병、가래토시、기타매독성으로부터 발생하는종종에는 어더한것이라도특효합니다

FUKUHOO EBISU 僞造藥特別注意

근래에、화약、정제、등의약을가지고、만병약수라하고、만병수와가튼처방（處方）가튼배제（配劑）의 효력이라하고、광고를하야、위조판매를하는자가잇는일이라。원래만병약수는、수제이옵시다 수제가、화약과정제와가튼처방（處方）가튼배제（配劑）로는되지아니하는것이라、이점을여러분께서는、잘리해하시여서 속히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주십시요、여러분잘아시는바와가티、만병약수는 옛날부터 물약이오니사실때에는、반드시물약만병수를 지정하시고 사십시요、물약이오면 진정한약이옵시다、지방판매점에 품절이옵거든、즉접제조본포로 주문하여주시옵소서 주의……주문하실때는 하기와가튼 주소를기재하여주십시요

진체를리용하는분은振替口座京城三二二〇番魚乙杉藥院에拂込하야주시요

補材藥水

보재약수

본제난신체의 모든독을업새고、신체를정정강견히하며、병낫슨뒤에나 별는때에나약한몸을건강하게하고、반신불수（半身不隨）골절통（骨節痛）보（補）강혼병을 전치하고 항상몸이약한자의신체를 건강케만드난보재약이올시다

定價金二圓

最新發明

治淋劑

超越淋藥

◎男女淋疾消渴膀胱炎에最高의良藥◎治療機轉의速現에患者欣喜◎

二十一日分 金五圓

製藥所

EBISU

에비수

釜山本町

魚乙杉藥院

振替京城三二二〇番

SAIKICHIEBISU

朝滿赤化攪亂隊 十五名帶命潛入

海港遠東師範卒業朝中人 資金三萬留까지携帶

【安東二十八日發聯合】 당지에도착한 정보에의하면「쏘베트」련방해삼위(海蔘威) 공산당본부서는금번 해삼위 원동사범학교(遠東師範學校)를 졸업한조선인과 중국인 십오명을 세명을한대로하야 비용삼만루-불을주어조선과 만주국의지안을 교란하야적화선전(赤化宣傳)을 하기위하야 지난중순에 국경방면으로부터 잠입시켰다는 정보에 의하야 일만관헌(日滿官憲)은 대단히긴장하고잇다

仁川沿地組合 十週年記念式

【仁川】 곡물무역액만으로도 오천만원을 돌파한인천에서는 부두연안부두를유지함으로 인하야 여러가지 복잡한사단을 이르킴으로 그를방지코자 일정한구역을청하야 지대조합(地貸組合)을 조직코통제하든바 동조합이금번으로 십년을맞게되야 지난이십륙일공회당에서 관민유지 이백여명참석리에 공로자표창등피로연까지 성대히거행하얏다한다

역지부대를 유인하야 최근에부외공덕리(孔德里)에 잇는 박삼복(朴三福)—假名—의안해김성녀(金姓女)(二○)를 꼬여내서부내관철동(貫鐵洞) 조선려관(朝鮮旅館)에 투숙하고 잇는것을 본정서(本町署) 리(李)형사가이십팔일 아츰에 검거체포해다가지금엄중히취조를하는중이라한다

安重根從弟安愼根 富豪密會타被檢

上海서運動튼丁某와도會見 警吏消防手聯合搜査

【長淵支局電話】 지금으로부터이십륙년전 하르빈(哈爾賓)역두에서 이등박문(伊藤博文)공을 암살한 안중근(安重根)의 사촌이라고하는 안신근(安愼根)이 돌연 당지 읍내에 드러와 부호오모(吳某)를 차잣다가 주인이업서맛나지 못하고 도라갓는데이십칠일에 다시 상해(上海)에가서 오래동안잇든 정모(丁某)의집에 나타낫다는 소식을 드른당지 경찰은 목하(木下)경부보가 서원과 소방수를 동원식혀 부근일대를 수사하는중 동일밤 열두시경에 정귀오모의집에서 검거하야 동서에 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이다

崔水雲紀念式

시내경운동에잇는 천도교중앙교회에서는 이십팔일이 동교제일세교조최수운(同敎第一世敎祖崔水雲)씨의 출세한 제일백십일회 그념일임으로 오전열한시 동교당안에서 김경함(金庚咸)씨의집례하에최준모(崔俊模)씨의 그념사가잇슨후 동교소년부합창대의 그념가합창(紀念歌合唱)으로 성대히식을 거행하고 동열두시에 페식하엿다한다

採石工夫 五名生埋 安東縣에서

【安東二十八日發聯合】 이십칠일 아츰당지 칠도구조림창(七道溝造林廠) 부근에서 석재(石材)채집을하고잇든 파암공(破岩工)오명은 돌연 떠러지는 바위에깔녀 말다섯머리 마차다섯대와 함께파무처 즉사하엿다한다

麻藥退治會 부내종로경찰

서위생계에서는 이십팔일오후세시 이층회의실에 관내유지를청하야 조선마약중독예방협회종로지부(朝鮮麻藥中毒豫防協會鍾路支部) 창립총회를 개최하엿는데 이회의목적은 관내에서 마약중독자를 근절식히고저 마약중독의 예방과치료에 주력하는데잇다한다

거리의殊常漢은 指名手配의怪賊

이십칠일오후열시 시내본정서원은 황금정(黃金町)칠정목에서거동이 수상해보이는 사람을붓들어다가 엄중히조사해보니 그는의외에도 지난팔월이래로 룡산철도관사(鐵道官舍)를 비롯하야 시내각처 부호집에 당돌넘어드러가서 현금 금시계 보석반지 사진그계등 귀중품만을 전문으로 전후수십차에 수천원어치를 도적질 한것이 판명되야 지금까지 시내각서에서 수색하고잇든 범인으로 시외창신동(昌信洞)칠번지의 십호에사는 리긔동(李基東)이라는데 아즉도말하지 안한범죄사실이 만히잇슬것갓다하야엄중취조중이다

한글紀念會盛況

— 이십팔일은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하신 제 사백팔십구회를 마지하는 그념일이오 겸하야 금번으로 우리가「한글 루네상스」를 이르키어 그 보급에 활동한지 십년을 마지하게 되엇스므로 이날을 그념하기위한 그념식이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발긔로 각계 유지 일백여명이 당일 오후여섯시에 시내 돈의동(敦義洞)명월관(明月館)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엿다 그리하야 식은 사회를맛튼 리희승(李熙昇)씨의 개회사로 시작이되어일동 긔립으로 장지영(張志暎)씨로부터 훈민정음의 서문낭독이 잇섯고 리만규(李萬珪)씨의 간곡한 그념사와 최규동(崔奎東)씨등 수씨의 축사와교육레코-드의 신청등이잇슨후 만세삼창으로 무사히 폐회하엿다

大規模金密輸團 新義州서發覺擴大

【新義州支局特電】 신의주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수일전부터 돌연 대활동을 시작하야 무엇을극력 조사하든바 이십칠일에는 형사 세명이 평양까지 출장하야 김세준(金世俊)외 여덟명을검거하여다가 방금극비밀리에 취조를계속중인데 그들은 오래전부터 금괴(金塊)를 만흔 수량을 안동현(安東縣)방면에 밀수한 터로 공범자도 상당히 만흘모양이다 사건은 더욱확대될듯이 보이는데 여덟명중 여서명은 다중범녀자라고한다

假鑛業者가 人妻를誘引

금광업이란 허울조흔 간판을 지고도라다니면서 여염집부녀를 농락하다가 경찰에 붓잡힌사나이—자칭홍성군 광천면광천리 홍기섭(洪起燮)(二六)—假名—은 금광업을 간판으로가장큰 부호인척하고 신분에넘치는 호사치장을하고 도라다니면서 여

咸北을中心으로한 大量阿片密輸團

仁川稅關에서發見

【仁川】 본적을 중국산동성래주부(中國山東省萊州府)에두고 함북성진(城津)근방을 두류하든왕지복(王之福)(三○)은 지난이십칠일오후한시 중국상선에 의하야 다량의 생아편을 행리(行李)에너어 밀수출을 하라다가 인천세관리에게 발각되여 소관인천서에 인치되엇는데 그는 약사변전부터 성진근방에서 밀조한 생아편을 일일육십전식에구입 홍은밀조한것으로 현품이오백량(시가약천원)을 압수하얏스나 전긔밀조지대인 함북(咸北)에는 그일단이 잠재하야잇서 활약중임으로 취조여하에따러서 전개될지가장주목되는바이라한다

自轉車가自動車와 衝突로重傷을입어

부내현저동(峴底洞)사십륙번지의 칠백십사호 리종대(李鍾大)(二七)는이십팔일오후 네시반 자전거를타고 종로오정목 일백이십사번지압흘 지나다가 때마침그곳을달리든 경성택시경재구천이십호 자동차에치여 머리와다리에 약이주일간치료할 상처를밧고 방금본정(本町)이정목 도전(稻田)의원에서 치료를밧는중이라한다

純情의孝誠도 南柯의一夢!

慈父는黃泉客되고 愛女는人肉市로

偏母幼弟로발길못내드디는 當世沈淸의뼈압흔哀話

아버지의 신병치료비 사백원으로해서 앗가울게도 인육시장의 제옹이 되어가는 방변열여덟살의 꽃다운처녀=시내 합동(蛤洞)팔십번지의오호 조덕호(趙德浩)의장녀 선희(善姬)(一八)(假名)는가난한 가세에 그부친 조덕호가 작년 봄부터 중병이드러 남대문통「세부란스」병원에 입원을하야 입원반이나 치료를하엿는데 그비용을 대일길이업는지라 서사헌정(西四軒町) 일백칠십오번지 유곽업자 송치홍(宋致弘)에게서 창기의전차금 사백원을 빌려썻섯다 이와가티 눈물겨운 치료의 보람도업시 부친 조덕호는 수일전에 사망을 하엿고 선희는 나히 만흔 편모와 아래로 네동생을 데리고 살길이 업는데 문제의 전차금에 억매여 부득이 인육의 시장으로 끌려 드러갈 수속을밟지 아니하지 못하게 되엇다그리하야 소관 본정서로부터 선희의 주소관내인 서대문서에신원의 조회가 온것을 동서에서 조사하여본결과 전긔와가튼 곡절이 판명되엿는데 동서에서는 그신세를 가긍히녀이어 혹시누구든지 그전차금을 가퍼주고하녀동속으로라도 데려갈 사람이 업든지 물색중이라고한다

平北一帶의暴風雨 道路崩壞로車馬不通

【新義州】 이십오일 오후두시경부터 평북일대에는 때아닌 폭풍우가나려 피해가 적지안흔모양인바 창성군대창면대길(昌城郡大昌面大吉洞)재소 상류약삼백메돌지점인 의혜(義惠)선 이등도로 일부분이 문허저서 차마가 불통이라한다

被告大槪는審問 次回는來十一日

新建設社事件公判

【全州支局特電】 신건설사건공판은 오후한시반에 속개되야박완식(朴完植)부터 심문이 시작되엿다 좌익운동에 눈을 뜨게된동긔가 무엇이냐고 재판장의무름에대하야 박완식은 동무가서점(書店)을 경영하는 관게로가끔가끔 팜플렛등을 읽은데서부터인데 프로예술에 흥미는 가젓스나 의식적으로 실천운동을하려는 생각은 업섯다고 대답하자 재판장은 공산주의는 어떠냐고 무르매 박완식은 그런 사상을 생각한일도 업슬뿐아니라 원체부터 사상방면에는 마음을두지안하엿다고다음에권경완(權景完)은 사실을 부인하고리갑긔(李甲基)의 심문에 들어갓는데 그는 이십삼세때부터 좌익서적을 읽고맑스주의에 공명하엿스나 최근에 와서는 작품(作品)도 내지안코 잇다고진술한후 리상춘(李相春)은 공산주의는 사변전 부터 공명하야 먼저 문예운동을 시작하야 일반에게 공산주의의식을 주입식히기에 활동하엿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지금은 어떠냐고무르매 그는 육체적으로밧는 고통이 너머나심하야 인제 그만두겟다고 대답하자 법정안에는 우숨소리가 가득하엿다 그다음 김영득(金榮得)은 문예에도 예술에도 실천적리론은 갓지안하엿다 다만 순전한 영화(映畫)기술자로서 활동하엿슬뿐이라고대답하엿다 백철(白鐵)은 자긔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생각해본적이 업다고 본사건의내용을

美貌人妻殺害事件 犯人畢竟迷宮에

平壤署繼續搜査中

【平壤】 평양부내한복판인 선교리(船橋里)에서 발생된 미인인처 김복실(金福實)의 살해사건은 발생후 오일간이나 경과해서도 범인은오리무중에 사라진채로 아모런단서도 엇지못하고 갈팡질팡할뿐 수사대의 애만태울뿐이다 이리하여 이런긔만점의사건은 지구전에드러가고 말엇다

兄弟合同의 少年賊團 열쇠만四十個

시내종로서 사법계에는 이십칠일에 경북김천군 남산정(金泉郡南山町)리병권(李秉權)(一七)과 그의아우 병한(秉漢)(一五)등네명의 소년절도단이 체포되엿는데그들은시내수창동(需昌洞)건축중의집을 근거로하야 지난팔월십삼일에 시내가회동(嘉會洞)사십삼번지의이십이호 리대규(李大珪)의집에침입하야 층옷그 일백이십원어치를 도적한외에서 전후이십여회에 빼처서 일천오백원어치 물건을 도적하엿는데 그들은 사십여개의 각종열쇠를가지고서 교묘하게 칩입하엿던것이라한다

◇猛犬咬人

요사이 군용견(軍用犬)열이 심해짐을따라 일반가정에는『쉐퍼드』를 만히길르게되엿는데 이일면에 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함부로무는일도빈번하야 통행인에게 일종의 공포심을 일으키게하고잇다 이십륙일오후다섯시 부내숭이동(崇二洞)이백오번지 궁기민량(宮崎敏良)(三○)은 그동리 삼십삼번지 앵정의삼(櫻井義三)의집 압흘 지나다가 그집 개에게 다리와팔을 함부로물리여 약이주간 가량치료할상처를 바덧는데 이개는 원체부터 사나운개로 그근처사람들이 마음노코 밤에길 지나다니지를 못하는터이라한다

女子스포-츠界華陣!

全朝鮮女子籠球

梨花女子專門主催·本社後援 來月二十二日에開催

今年度의 女子스포-츠界의 掉尾를 裝飾할 梨花女專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二回全朝鮮女子中等學校籠球大會는 來十一月二十三日에 梨花女專體育館에서 開催될터인바 同大會의 細則及規定은 다음과갓다

【參加規定】

◆參加資格=各校「팀」에限함

◆登錄人員=選手十八人以內

◆申請期限=十一月十八日午後四時까지

◆抽籤日字=十一月十八日午後五時

◆抽籤場所=梨花女子專門學校體育館

【大會規則】

◆本大會는 朝鮮女子中等學校籠球競技의 向上을 期하며 優勝함으로써 目的함

◆本大會에서 優勝한「팀」에서 次回大會까지 保管함

◆本大會에 優勝「팀」에는 朝鮮日報社에서 制定한 優勝盃를 授與

東京遠征中의 中等庭球代表 府縣對抗에惜敗

【東京에서朝鮮學生軟式庭球團發】 東京遠征中의朝鮮中等軟式庭球團은 二十八日에 戶山學校코-트에서열린 全日本中等府縣對抗戰에出場하얏스나 第一戰에 千葉縣을이기고 第二回戰에는 惜敗하엿다 一行은 連日의降雨로因하야 練習을行하지못한이 敗因이다

朝滿氷上對抗 파遣別競技會

【新義州電話】 滿洲氷上競技聯盟에서는 來年度滿洲對朝鮮氷上大會를 明春二月二日安東縣에서 開催키로決定되엿다 그리고 朝鮮의氷上代表選手一行은 來年一月中旬에 出發을압두고 安東縣에서는 十二月中旬에 金正淵 李聖德 張祐植選手一行을마저 送別競技會를開催하기로되엿다 一行에게寄附하야 그收入을

早慶野球 4-4 遂無勝負

【東京電話】 東京大學野球秋季리-그의 最終戰인 早慶第一回戰은 二十八日午後二時八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早大先攻으로開始하얏는바 早大九回末에 一點을 넘어同點되야 二死滿壘의 好機를 놋치고 드되여 四對四의同點인채日沒로 無勝負로마치엇다 (所要四時四十八分)

◇投手=慶應=十井、橋本、櫻井 早大=若原、浦田

慶應	100003000	4
早大	100000201	4

運動界人事

▲平壤庭球選手 張昌鎭、朴仁植、朴炳烈、尹昌寶、李致淳、李正珉、朴泰鉉諸君은 이번東京서열리는 올림픽庭球豫選에出戰코저 上京滯在中이든바 事情에依하야 豫選戰에는參加치안키로되여 昨二十九日밤東京로歸鄕

世界올림픽大會 아마듀어拳鬪 朝鮮豫選大會

◇第一次豫選 十二月初旬 第二次豫選 一月初旬

主催 朝鮮아마拳鬪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세계에자랑할글은『가갸거겨』우리글

예전에는생원님들의천대꾸러기 그러나부인네힘으로자랏다

우리것이라고 덮떠 노코 다 조흔 것도 아니겟고 우리것이라고 덮떠 노코 다 나쁜것도 아니올씨다。공연히 돗불것도 업고 또 공연히 깔볼 껏도 업시 그저 조흔것을 조타고 하고 나쁜것을 나쁘다고 하는것이 제일 정당한 일입니다。그런데 나쁜것은 이다음에 이야이할 요량치고 조흔 것은과연 무엇무엇이오니까?

조흔것도하나둘

이 아니어니 엇재 다 이로 헤아리오리까? 그러나 이런것이 조타 저런것이 조타 하야도 우리의 글처럼 세계문화사상에 빗나는 것은 업스오리다。그야 다각각 자긔네의 글을 가지고 잇는민족이 하고 만허서 글의종류가 이백여가지를 넘는다고 하지오만은 그어떠한 글이든지 우리글보담 더 낫고 더훌륭한것은 하나 업답니다。

×

그런데 우리조상님네는 그와 가튼 보배를 가지고 잇스면서도 그

갑어치를잘몰라

서 언문이다 암클이다 구박이 자심하지 안 햇습니까만일 안악네가 아니엇든들 그글이 어느 궁령이로 빠저 드러가서 어떠케 업서저 바리엇슬지 누가 압니까? 우리의 글을 지히어 온데 잇서서는 안악네의 공로가 절대로 만습니다。부인네자랑할 을 무식쟁이의 대명사처럼 쓰고들 잇스되 그런 부인네자들이 도리어 이러케 큰공로를 세우고 게십니다。갓 쓰고 도포입고 맹자왈 공자왈 하면천하사를제혼자 아는체 하든 그소위

학자님네의면목

이 어대 잇습니까? 어려운 한문을 배화가지고 우리글을 우숩게 알지 말고 쉬운우리글을 가지고 더만흔 사회사업을 하얏든들 그효과가어더하겟습니까?

×

영문도 배화 조코 독문도배화 조코 그야 서천서역국의 글을 잘해도조습니다다만은 어째든지 몬저우리글을 잘알고 나서 다음에 할 이약이올시다 저의글도 잘모르는주제로

남의글을잘알려

덤빈다하니 옷으운 노롯이요 괴상한 짓이요 거의 실성한 사람의 행동입니다。몟날의유명한 분이 말슴하기를 남의 글을 잘알려면 내글을먼저잘 알아야 한다고 하얏습니다 그말대로 간다면 내글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남의글이나마 잘 알려이 조곰도업습니다。

×

몟날의 조상님네는 우리글을 잘 모르고서 한문만을 배호려덤비더니 시쳐청년들은 우리글을 잘모르고서

독문이나영문만

을 배호려 덤빕니다。조상님네가 잘못해 노흔 것은 아모리 떡하고 분하더라도 긔왕지사 말할ㅅ것이 업사오나 그러서야 참으로 상심되지 안할수 업습니다。글이나 오작 조흔 글입니까? 변변에 어떤 서양ㅅ사람 한분은 에국에대고 중국서도 우리글을 채용하라고까지 권고하얏더랍니다。그래 그 보배스러운 글은 좀더

보배답게지닐수

는 업습니까? 우리가 다한께 노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글이 생겨서 금년으로사백여든아홉돌을 마지한답니다 날짜는 명확치 안하나 달만은 음력구월이라 구월그믐으로 표준하고 환산한결과 양력으로 스무여드레ㅅ날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글의 긔렴일로 정하얏다나요 오래동안 우리글을 지히어 주신모든 안악네들은 누구보담도뜻기피 이날을 긔렴하야서 되겟지요。

글업든대고적에는 엇더케들지냇슬까

태고와 태고ㅅ적 글이업슬때에는 어떠케 지내는냐하면 그때는 그때대로 할방법이 만헛습니다。첫재 나무에다가 이리긋고 저리그어 글대신 쓰기도하고 또노끈을 이리매듭짓고 저리매듭지어서 글대신 쓰기도햇답니다。지금도 야만인중에는 글이업서서 이런짓을 하는데가 업지안습니다。대마도의 생번、숙번하는번이들도 그런종족의 하나랍니다。아메리카의 토민들은 조개껍질을 가지고 글대신쓰는일이잇습니다。즉 힌조개껍질은 행복이란뜻검은 껍질은 불행이란뜻、붉은껍질은 전쟁이란뜻、보라껍질은 위험하다는뜻、등으로 해석 된답니다。

력사에빗나는 여러어른들!

우리글은 누가지엇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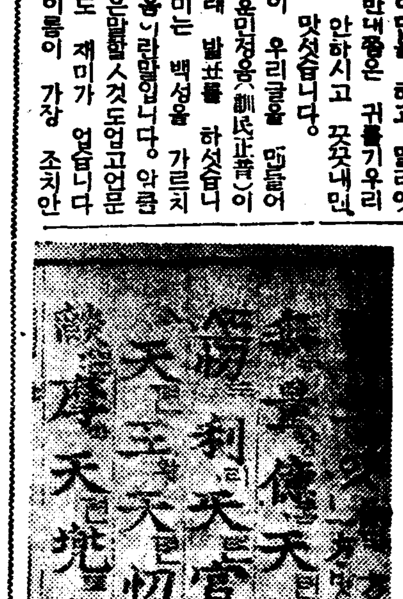
우리글을 처음 맨들어 낸 어른은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입니다。그는 태종의 아들로서 바로 서울에다가 도읍을 차리고 조선을 세운 태조의 손자옵씨다。그러타고 그 임금이 모다 손소 맨든것이 아니라 성삼문(成三問)이라든지 신숙주(申叔舟)라든지 하는 그당시 재조잇고 학문잇는 신하들을 다리시고 가치 의론도 하고 연구도하야 가면서 맨들어낸것입니다。임금과 신하가 서로 이약이하다가 그래도 모르는 구석이 잇스면 입브러 중국으로사람을 보내서 중국학자에게 물어가지고 와답니다。중국학자란 황찬(黃瓚)이란분입니다。그는 그당시 중국서얼마나 유명하엿든지 우리글을 맨들어 내는데 여간 [illegible]에 잇서 만흔 힘을 빌려 주엇든 모양입니다。

조선서 임금이 태조 때부터 후 왕을 여러 분이 게시지만은 그 중에서 세종대왕가튼 임금은 단 한분에 지나지 안습니다。학식도 만코 정치도 잘하고 또 북쪽의 네진좃을 처서 함경도 땅을 넓피고 그야말로 문무겸전한 어진 임금이엇습니다。그런데 그임금의 하신 일중에서도 더욱 갸륵한 노릇이 우리글 맨들어 노흐신 것입니다。그때도 썩어빠진 선비들은 왜그런것을 맨드시느냐고 드리 야단을 하고 말리엇건만 그런반대좀은 귀룹기우리 어 듯지도 안하시고 끗끗내맨들어노코야 맛섯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글을 맨들어 가지고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이름아래 발표를 하섯습니다。그 의미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음ㅅ이란말입니다。악클이란 이름은말할ㅅ것도업고언문이란 이름도 재미가 업습니다 정음이란 이름이 가장 조치안[illegible]자어 한글이라고 하는것은 큰글이라는 뜻입니다。그역시 만히들 쓰게되다면 무방할줄 압니다。

훈민정음이 발표된 분은 세종이십팔년 구월이라니 지금으로 부터 사백팔십구년전 구월이엇든 모양입니다。그러다가 날자는 아모데도 긔록되야 잇지를 안습니다。그래서 그믐날로 긔념일을 정한모양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하기이전에도 우리글이 잇섯다는둥 업섯다는둥 학자간에 말이 만습니다다만은 아즉것은 그런글을 발견치 못하고 잇습니다



•••• 세조대왕이지으신 월인천강곡 ••••

[illegible] 세자 [illegible]에 그어[illegible] 잇섯다고 하더라도 훨지 정[illegible]치도 못하고 완전치도 못하[illegible]든 것이기에 다시 훈민정음을 맨들도록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또 훈민정음은 몽고ㅅ글을본떠서 맨들엇다는둥 인도ㅅ글을본떠서 맨들엇다는둥 그러 시학자간에 말이 만흔데로 어[illegible]니다。하여튼지 우리글은 몽고ㅅ글이나 인도ㅅ글에 비교해는 여간 뛰어나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본떠맨들엇다고 보지 못합니다。

나라따라 민족따라 세상글도형형색색

글에도 여러가지가 잇서서 이런글 저런글로 난홉니다。

첫재는 그림글입니다。이것이 가장 태고ㅅ적의 글입니다。세계 여러나라의 글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엇다는 글로서 애집트ㅅ글이라든지 앗시리아ㅅ글이라든지 처음에는 모다 그림글이엇습니다。한문도 물론 그예에서 빠지지안해서 오늘날의 뫼산(山)ㅅ자는 산이꾸불꾸불 올라가고 나려간것을그린것이요내천(川)ㅅ자는 물이 죽죽 흐르는것을 그림으로 나타낸것인데 후일로 나려오며 그러케 변했습니다。

둘째는 말글입니다 이제는 그림을 떠나서 말로 읽게 되얏습니다。오늘의 한문은 그런글이올씨다。천지(天地)란글짜에서 하늘이나 땅의 그림은조금도 차저볼수업고 그대신 중국ㅅ사람의 하늘이란지 땅이란 말을 표시하게쯤 됩니다。그러니까 그런글은 말마다 글짜가 하나씩이라 한문처럼 아조 글짜가 만케되야 거북하기 짝이 업습니다。

말이란 소리가 잇는 것이니까 소리만 표시하도록 되면 그보담 더 편리한 방법이 업게 됩니다。영문 독문 우리글 모도다 이런글에 속합니다。글중에 가장 발달된 글이랍니다。

그 이외에도 쓰는방법을 가지고 난홉니다。첫재는 한문이나 우리글처럼 내려쓰고 또 오른편짝에서 부터 드려 쓰는것。

둘째는 몽고ㅅ글이나 만주ㅅ글처럼 나려쓰되 왼편에서부터 내쓰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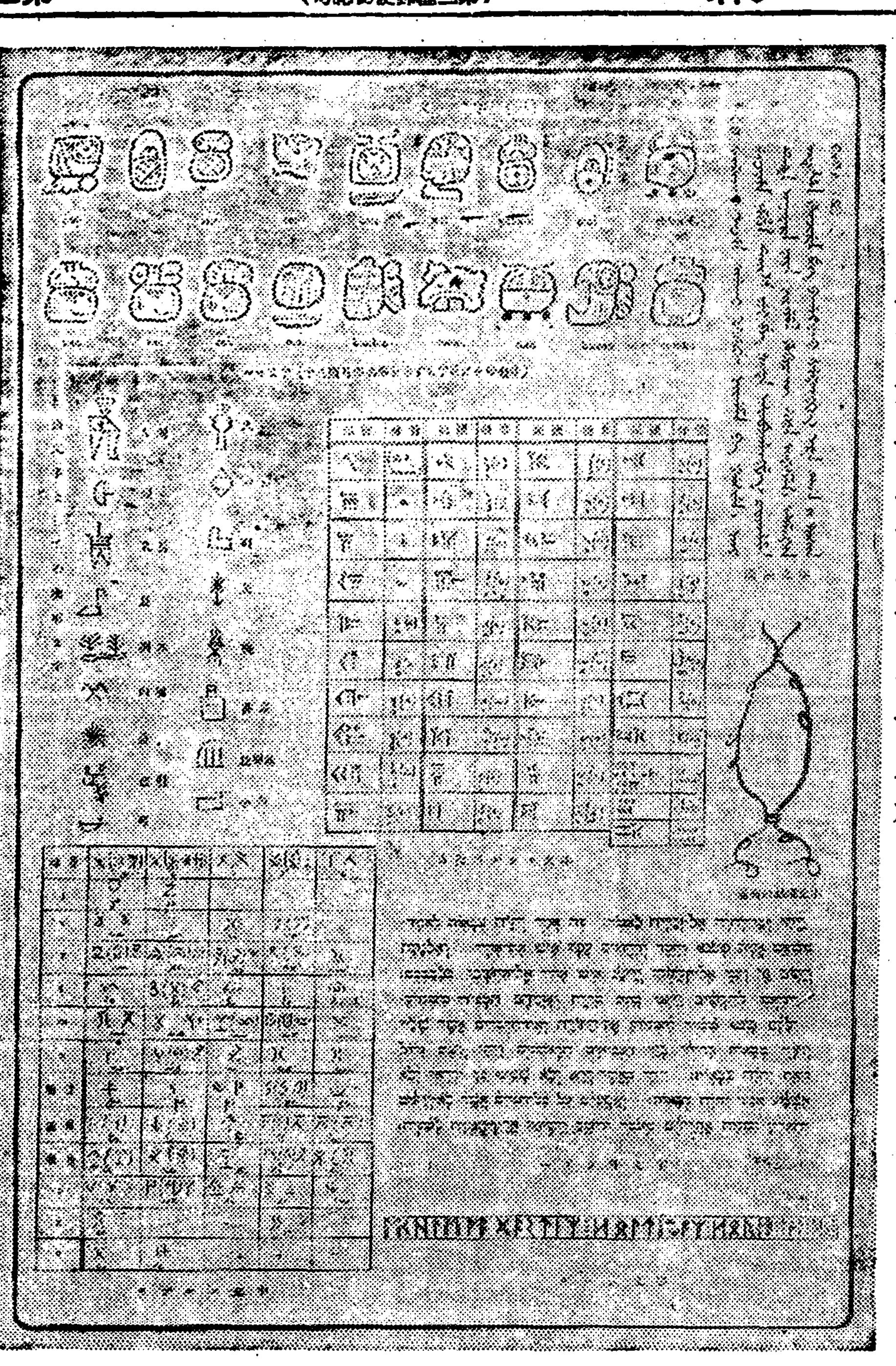
셋재는 영문이나 독문처럼 가로 쓰고 왼편에서 내쓰는것。

넷재는 아라비아ㅅ글처럼 가루 쓰되 오른편에서부터 드려쓰는것。

환절때에 주의할감귀

=머리는차게、발은더웁게=

날세가 점점치워가니 이때가 제일 감긔들기 쉬운 때입니다 감긔에는 처음부터 목구멍이간즈럽고 기침이나는것도 잇지마는 코ㅅ물만 작고흐르면서 골치가 압흔증세도 잇습니다。대개는 처음에 맑은 코ㅅ물이흐르고 코구멍이 막히면서 전신에 열이나는데 잘하면 끗낫지마는 잘못하면 오래도록고생하는수도잇습니다。그러면 대체로 감긔는 엇더케해서드느냐하면 아직도 의학상으로 충분한 증명이 안되엿스나 대개는 우리가 상식상으로아는바와가티 찬바람을 쏘인다던지 찬비를맛는다던지해서 신체가냉각하면 드는것입니다 그러나 다가튼 원인이라도 감긔가 잘드는사람이 잇고 잘듣지안는 사람이잇는데 대개 감긔가들기쉬운사람은 첫재 피부가약한사람 선병질인사람、이비인후에 본래부터 고장이잇는사람은 감긔가들기쉬운것입니다。그럼으로 누구던지 자긔의신체를 잘생각해보아 혹치운바람을 쏘이게될때라도 잘주의하면 예방할수가 잇습니다。그리고 발을 차게하지말고 넘우 과로도하지안는것이조코나 그 보담도 밀이부터 신체의단련을 잘 해두는것이 조흡니다。가령 냉수마찰을한다던지 산ㅅ보갓흔것을해서 평소에 몸을건강하게 하고 저항력이잇게하는것이 조흡니다。그리고 긔왕 감긔에걸리게된뒤에는 무엇보담도 안정하게하여서 하로ㅅ밤동안 잘쉬면 한이나하고나면 낫기는하나 감긔라고해서 그대로 두면 다른병발할는증세로 인해서 큰고생가맥혀다고해서 넘우 심하게풀을 하기쉬운것입니다。그리고코면 귀ㅅ속청에올려서 중이염(中耳炎)가튼것이 생기기 쉬운것입니다。



…… 세계각국의가지가지문ㅅ자 ……

家庭醫學

손까락이적어

問 저는 십구세소년입니다 이삼년전부터 신체부분이 건전하게 발달하얏사오나 다만손까락이 다른 동모들보다 적습니다 의학상으로 손까락을 크게할수업슬까요 또 얼골도적습니다 크게할수업슬까요 (P生)

答 현금 의학상치료법으로 손과얼골만을 크게하는방법은 미안하오나 업습니다 그러나 다른곳과가티 발육이 안되는때에는 내분필선(內分泌腺)의 고장으로 이러나는일이잇사오니 당신은 지금발육과에잇는고로 차후에 또다른고장이 안생길지를 한번 내과의사에게 진찰하여보기를 권합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신경쇠약에조흔약

問 신경쇠약에 어떠한약이조흐며 또주사약에는 무슨약이조흡닛가 『구로르카르시움』보다도 더나흔것을 요구합니다(麻浦 朴雲起)

答 신경쇠약치료는 그원인여하에의하여 치료방침 또는 복약등이 일정치못하며 또그경과에의하여 여러가지 방침이잇사오니 간단하게말슴하기 어렵습니다 주사약으로도 원인에의하여 일정치안흐오나 단순한 신경쇠약이면『쁘로므』든만드른주사약을 사용함이조흡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뜨거운술을몰너

問 저는사십삼세남자인데 삼년전부터 양편다리가 마찰력이 업서지고 찬줄흔아르나 뜨거운것은 조금도감각치못합니다 무슨병이며 복약은엇지하릿가 (羅州讀者)

答 다리가일시에감각이 업서젓든지 혹은점차로 그리되엿는지 자세치안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혈액을 검사하여야되겟습니다。뇌신경에매독으로 인한고장인것도갓습니다 복약도 검사하신후에 함이조켓습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問 저는이십오세남자인대 수염이 온낫에 엇지만히 나는지 큰 두통입니다 탈모제를 사용하야도 효력이업스니 황새똥을바르면 엇더습닛가 수염빼는 약을 가라쳐주시요 (大邱多毛生)

答 내분필선(內分泌腺)의 고장으로 발생한것이면 약으로라도 효과가잇겟스나 그러치안흔 단순한다모증에는 약이업습니다 내분필선의고장은 다런발육기관에도이상이잇스니 알기쉽습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詳細追後發表

第三回秋期音樂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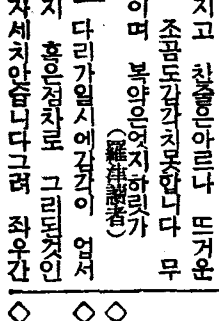
出演樂士 金元福、玄濟明、洪蘭坡 蔡善葉、朴景嬉、京保合唱隊

=時日= 十一月二日(土)下午七時半

=場所= 朝鮮日報社大講堂

主催 京城保育學校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午后六時二五分 經濟解說

◇同七時三○分 記念講話 한글날記念 李克魯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竹[illegible] 杖鼓[illegible] 二、唱劇調 沈淸歌 劉秋成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分 流行歌 伴奏 DK管絃團 全永甫

◇同九時 古談 검도령 車靑吾

【追信】 十月二十七日午後○·○五 唱劇調는 다음과가티 變更함

唱劇調 一、短歌 天下壯平 二、沈淸歌 金素姬 鼓手 池龍九

十月二十九日(火)

◇午後○時五分 古談 義人呂大洪 月波

◇同三時一五分 趣味講座 世界風俗巡禮(二) 金岸基

◇同六時 少年小說朗讀 田榮澤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任琡宰

◇同七時三○分 農村 特別講話 (一)農産物의商品化 金澔珏

◇同八時 花草四百里外 一、花草四百里 二、報念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鄭柳色 朴菊花

◇同八時三○分 (京) 合唱 京都同志社樂光俱樂部講堂으로부터中繼 메시아(救世主) 헨델作曲 獨唱 소프라노 印內穗子 獨唱 알토 齊藤靜子 獨唱 테너 內田榮一 獨唱 바리톤 大田黑義二 合唱 同志社 混聲合唱團 伴奏 同志社 신포니-오-케스트라 指揮 森本芳雄

◇同九時 回心曲 河龍男

曆 十月廿九日(火) 舊十月[illegible]初三日 戊寅·土·室·定

●立冬八日(舊十月十三日) ●小雪二十三日(舊十月廿八日)

聖畵 【14】

李孝石 作 安夕影 畵

요구로변하야 눈아페 나타낫슬뿐이다。

유례의 몸을 여페 가까히두고도 그것이『타부』인까닭에닷치지못하고 내깃분것이 아니라면 슬픈것이여야할것을 마음은 눈도깜작안하고 무감동하게 칩착함은 대체무슨까닭이엿슬까。

간밤의긔억도 다이저버린듯이 나는 무심히 행장을정리하얏다 실상은 그덜필요도 업섯겟스나 일이난후에 어지럽게 널녀잇슬 꼴이란 상상하기도 을씨녕스러운 까닭에 그런 주밀한마음씨를 앗기지안햇다。트랑크속에 너흘것을 다수습한후에 서울에잇는 가가의처리와 예금통장의처치를부탁하는 유례에게·보내는 편지를써서 그속에 넛코주인에게는 은밀히 유례가 머물으고 잇슬동안까지의 숙박료를 넉넉하게 치려주고는 낫숨되엿슬때 유례를 이끌고 려관으로 갓다。

가울하늘이 유리조각가티 단단해보인다 바로 산기슭의 푸른한폭은 때리면 깨트러질것가티 맑다。산허리의단풍이 날이새롭게 물들엇고 그것이 고기비늘가튼 조각구룸과 아름답게 조화되엿다。이런 자연의풍물을 한폭한폭 감상할만한 마음의여유조차 잇섯든모양이다。유례와의 마즈막산보의 한거룸한거룸을 아깝게녀이면서 피서촌으로 향하얏다。

『조흔분이 지금의내게는 탄탄대로로보이는구료。』

나의목적을 예료한듯이 끗까지 나의거동을 세밀히관찰하든 유례는 그한마듸에 나의마음을 간파한눈치엿스나 놀나는표정을 하얏슬뿐 닷다가 말은못니어

나는 그가못미치는동안에 재빨으게 혼자떠러저 언득 다리의거의복판까지 걸어가섯다。

『내내 건투하시오。현실의유례에게는 내손이닷지안흐니 유례의마음대로 가질수잇는 세상으로 가랴는것요。──외국녀자의 본을 바더 불근십자가를 세울필요도 업소。』

농으로 보이라고 될수잇는대로 웃으면서 란간의 쇠줄을잡고 널판기슭에 나섯다。

발서 일순도 주저할필요는업섯다。

『참으세요。기다리세요。』

유례가 황겁히 웨치면서 뒤여올때에는 나는 발서 발을디디고 잡엇든 쇠줄을 노흔뒤엿다。

얼골이 뜨고 오금이 근실거리는 극히 짧은순간 문득 눈아페는 푸른물대신에 유례、건수、라야 세사람의모양이 회호바람가티 휘슬려 뱅돌다가 다음순간 탈삭 부서저버렷다。

몸이 찌저지는것 갓고 억개가 쑥쑥 솟는것갓고──의식은 거긔서 끈허젓다。

갈은 하나밧게 업섯다。긔어코 마즈막으로 그길이잇슴을깨닷고 나의마음은 설렌는법업시 도리혀 침착하야젓다。

무위의생애에 끄트로하나남은 희망은 유례엿스나 그것을일케된순간이 곳 또한 유례를떠나야할수밧긔업는 확실히 저주된인생이엇다。저주된인생을떠남이 나에게는 차라리 구원이다。동시에 그것은 영원히 유례를차지하는 수단도된다。

그러나 그길은 반다시 새삼스럽게작정되길도아니다。평소부터 늘 예감하야오든──흡만의그림을 보기시작한때부터 마음속에 우렷이잠작되고 유례와가티 귀차로 분수령을넘을때에웬만치 작정된──말하자면 마음속에 익숙한 길이엿다。그것이 이밤에 마츰내 유례에게대한감정의성질이 확정되자 동시에결정적으로 작정되엿슬뿐이다。해발 팔백메돌의 기둥푸대기에서 일직선으로 바다로 떠러지든어지럽든 환영이 절실한 현실의 한울기의 고운 하야얀 말을 길은 들어갈사록 락엽이 어지럽다。백양나무 아카샤 다래넝쿨의락엽이 한층 민첩하고 빠른것갓다。머루송이가 군데군데 떠러진 길바닥에 병든나무닙새가 한닙두닙 펄둑펄둑 날어떠러진다。문득 벨레에느의『상송·도-똔느』의구절이 가삼속에 흘럿다。들니지안는 비오롱의멜로듸가 확실히 나의거룸의반주로 뼈를 아프게 긁는것이다。

락엽과나──나와락엽!

두번재들어간 산식당의 마즈막 오찬──그것은 최후의만찬과도가티 검소한것이엿다。빵과 포도주──포도주를 대신하는 꿀은 그다지 달지도안햇스나 그러타고 쓰지도안햇다。

식당을나가 긔어코 다다를곳에 마즈막목적지에 서게되엿다 기픈소우에 어마어마하게걸닌노픈널다리우에 다시섯것이다。다리가 출넝거리고 물이 나무닙 가튼것은 전과일반이다。다른것은 나의마음뿐이다。

色白く—白粉ツキよくなる

ウテナバニシングクリーム 雪印

사르르속살에녹아들어서 그대로의靑春의根本이되고 魅力美를내는 雪印크림

ウテナ粉白粉

우 데 나

今日도 우데나!

무엇무엇해도 아조썩잘먹고 完全히도오래가고 향내도조코 빗갈이훌융하게 조흠으로

언제나 우데나!

魅惑的이고高尙한 우데나는언제나 손놀수업다。

肌色 濃色 ×白 나추 ×健康 부른色 二十五錢 三十二錢 五十錢

오1클 一號 오1클 二號

우데나水白粉 三十二錢 五十錢

우데나固煉白粉 三十五錢 五十錢

東京本舖 久保政吉商店

學藝

現下朝鮮語의 重要論題인
『ㅎ』音에 對한 小論 (三)

洪起文

ㅎㄱ, ㅎㄷ等의 合音이 어떤것인가

먼저 『ㄱㅋ』 『ㄷㅌ』 『ㅂㅍ』 『ㅈㅊ』의 關係를 究明해 보기로 하자

(一)本來 『ㄱㄲㅋ』 『ㄷㄸㅌ』 等은 同一한 位置에서 同一한 破障이나 摩擦의 作用을 行하야내는 音이다. 그 點으로 보아서 세音은 서로 近緣의 關係를 가진다.

(二)그러나 『ㄲㄸ』等은 『ㄱㄷ』보담 좀더 甚한 閉塞이나 狹窄의 破障이나 摩擦의 作用을 行하게 되는 것이니 『ㄱ』이면 『ㄱ』 『ㄷ』이면 『ㄷ』이 두個 連接될때 『ㄲㄸ』로 混同되는 것은 한音을 이미 內破나 內擦로 내고 또다시 가튼 音을 내게 되매 고만그 音의 强度破障이나 摩擦로 混同되야 버리는 것이요 또 『ㄱㄷ』等의 子音이 다른 音끼리 까지 서로 連接될때도 上記와 가튼現象이 일어 나는것은 이미 內破나 內擦로 내여놓은 音이 그다음 오는 破障音이나 摩擦音에 흡수되어버리매 그여시 그音의 强한 破障이나 摩擦로 變해버리기 쉬운 것이다. 그러고 『ㅋㅌ』等은 『ㄱㄷ』보담 좀더 豊富한 呼氣로써 急激한 破障이나 摩擦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니 『각하』가『가카』 『잡히』가『자피』等의 例와가티 『ㄱㅎ』『ㅂㅎ』가 『ㅋ』『ㅍ』로 混同되는 것은 이미 한音의 內破나 內擦아래 口腔內의 狀態를 그대로 멈추어 두고 喉頭로부터 『ㅎ』音이 나와서 加重되는까닭에 마치 먼저ㅅ子音이 豊富한呼氣로써 急激하게 나오는것가치들리는 것이다. 卽 『ㄱㄲㅋ』 『ㄷㄸㅌ』等의 音은 同一한 位置에서 同一한 作用으로 낼에不拘코 그呼氣의 多寡乃至 그作用의 强弱에잇서서 서로 틀린다. 그 點으로 보아서 세音은 다가각 差異의 性質을 가진다

(三)如何에든지 『ㄲㅋ』 『ㄸㅌ』等은 獨立한 한個의 子音이요 반듯이 『ㄱ』 乃至 『ㄷ』等이 어떠한 音과 合해서 되는것은 아니다. 그 것은 마치 (ㅌ)나 (ㅊ)가 한個의 獨立한 子音이요 決코(ㄷ)와(ㅎ)나(ㅈ)와(ㅎ)의 合音이 아닌 것과 갓다. 崔鉉培氏 等의 『ㅋㅌㅍㅊ』를 『ㄱㅎ, ㄷㅎ, ㅂㅎ, ㅈㅎ』等의 合音으로 說明한것은 言語價値的으로 보아서 一理가 업지 안하되 聲音自體에 對하야는 적지 안한 誤解를 끼칠 憂慮가 업다. 特히 이 點을 注意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崔氏一派는 오즉 『ㄱㅎ, ㄷㅎ, ㅂㅎ, ㅈㅎ』의 合音만이 『ㅋㅌㅍㅊ』를 이룬다고 할뿐이 아니다. 『ㅎㄱ, ㅎㄷ』等과가티 그 反對의 合音도 『ㅋㅌ』等을 이룬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그 主張에 對한 것을 檢討하야 보기로 하자.

(一)『ㄱㄷ』等의 內破나 內擦을 行하고 連달아 『ㅎ』音을 加重하면 『ㄱㄷ』等이 『ㅋㅌ』로 混同되야 버리는 것은 事實이 아닌가? 그러지 말고 『ㅎ』音을 내어가지고 口腔內로 들어와서 音작스러이 『ㄱㄷ』等 音을 내게 된다면 어찌 될ㅅ것인가? 오히려 그것이 前者보담 平易한 코스다. 聲音學上으로보아서 『ㅎㄱ ㅎㄷ』等의 連接發音이 『ㅋㅌ』等音으로 變할ㅅ수잇다는것을 否認치 못 한다.

(二) 그러나 그것은 究竟 言語價値의 問題인바 『각하』『잡히』의 例와가치 『ㅎㄱ ㅎㄷ』等의 連接發音은 우리말에서 그例를 發見치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나하 나흐니』 『다하 다흐니』와 가치 『ㅎ』音과 連하는 말도 『나코』나 『다코』로 『고』를 『코』로 내는바 이것은 무어입까? 勿論 在來의 文獻에는 『ㅎ』의 바침을 쓴例가 업스니 『ㅎ』을 바침으로 아조 쓸ㅅ수 업다고 暫時 假定하야 두어도 좋다. 差異法과 一致法의 初步的 科學方法을 解得하는사람들이라면 『나코』 『다코』의 『코』는 『나허』 『다허』 『나흐니』 『다흐니』의 『ㅎ』音이 影響한것임을 容易하게 發見할ㅅ수잇슬것이다.

(三) 단지 『ㅋㅌ』等이 『ㄱㅎ ㄷㅎ』의合音이 아닌것처럼 決코 『ㅎㄱ』 『ㅎㄷ』等의 合音도 아니다 어대까지 獨立한 子音으로 『ㅎㄱ』 『ㅎㄷ』 乃至 『ㅎㄱ, ㅎㄷ』의 連接發音이 『ㅋㅌ』의 音으로 混同되야 버릴뿐이다.

訂正 前回分第二段 第十四行의 『子音이한個以上日 存在치못하는것』은 『子音이한個以上日發音되지못하는것』의 誤植이압

隨筆 마음의 逆旅 (下)

柳致眞

故鄕

故鄕은 자기신ㅅ은 신발과가티 만만하고, 自己가 쓰고다니는 帽子와가티 제 머리에맛는 것이다.

내故鄕은 統營이다. 더구나 統營의 바다는 아름답다. 누구나 밤에 統營을지낸사람은 統營의 妙하게도 아름다운 情景에醉하리라. 나의로만티시즘 나의詩 나의理想 나의現實을보는눈 ── 그 모든것은 그바다와 섞그煙霧와 泉波、그생선썩는 냄새와개(浦)냄새, 그뱃노래와 낙시질이 모두내게 가르쳐 주엇슬것이다.

바다까에는 꿈이만코 現實이 만흔까닭이다.

나는 一年이나 잇태만에 제 故鄕에를 차저간다. 거기에는 落葉가티 말러가는 어머니와 흰 머리가 늘어가시는 아버지가게신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누이도잇다.

그러나 不幸히 내게는 故鄕에對한 愛着이 나날이 성그러감을 본다. 그리고 故鄕에對한 懷鄕心조차 어릴때와는 아조달러진다. 이는 웬일일까?

故鄕은 내집임에 틀님업다. 그집이 웨나하고이러케 머러지는 것일까?

나는 생각한다. 내故鄕은 내가 가볼때마다 이웃이 바기고 거리가 變한다. 녯보든 사람은 달너지고 달너진거리는 녯보든 거리가 아니다. 卽 故鄕이란 내집이면서도 날이갈수룩 때무든 내食口가 업서지는것이아닐까?

혹 나는 구멍가개가 느려선 故鄕의거리를 밟으면서 이러케맘을 속으는거린다.

『애그 웨이러케 달너젓나?』

그러나 이러케 달너진것을 가르처 그고을사람들은 자기고을이 發展된것이라고 자랑한다.

最近二十餘年間에 조선이 開化된 德澤이라고도 하는것이다.

실상 그동안에 統營에는 電燈이 밝히고 水道가 노히고 發動船이 퐁퐁대고 自動車가 다니고…… 그런다.

그러나 그開化된德澤이란 나의눈에 비친限에서는 草家집농이 양철집농으로 變한것뿐이다

그리고 發展된거리라는것은 술집이놀고(놀내지마라 統營邑에는 일팔집에 한집의比例로 술집이 잇다는것이다)

그리고 ××이놀고 代書所가 놀고 (이것은 去來보다 차흥이만타는 證左이다) 高利貸金業者가 놀고(都市에서는 典當舖이겟지만 小都市에서는 高利貸金業이다)……

그런것이 는것뿐이다

寒心한일이다 그리고 모처럼맛나는 故鄕사람은 나를 못드는 체이사가 이러라

「돈 만히 버러왓나?」

혹은

「그새 망이히 삿소?」

왼손을 들어도 돈이오 바른손을 들어도 돈이다. 돈업하는 義도업고 正도업다는말은 녯날부터 이르는말이지만 이러캐萬이 稀한 고향은 비단 내고향뿐이 아닐것이다. 나의 竹馬之友는 나를 붓들고 確信을가지고 말햇다.

『우리에게는 文化도업다. 그러치만 인제부터서 우리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모든것을 사야한다. 다만 돈이모든것을 解決한다』

極히 拾惻하고 進步的인 思想이다. 나도 그말에는 그一理를 否認할수업섯다. 그러나 結局 그말은 우리가 第二猶太人이되려는 自己辯護가 아닌가십헛다 여차피 우리故鄕은 퍽 맥낭스럽게 되어간다. 이것은 우리自身이 맥낭스럽게 되어가는데 그原因이 잇겟지마는 이에對해서 나는 여간失望과 愛惜을 느끼는것이다.

누가 自己누이나 어머니가 紛바르고 嬌笑하는것을 조하하리 내게는 내故鄕이 내누이요 내 어머니인것이다.

近代山岳史話 駱駝山 (25)

梨花亭과 一翁亭

湖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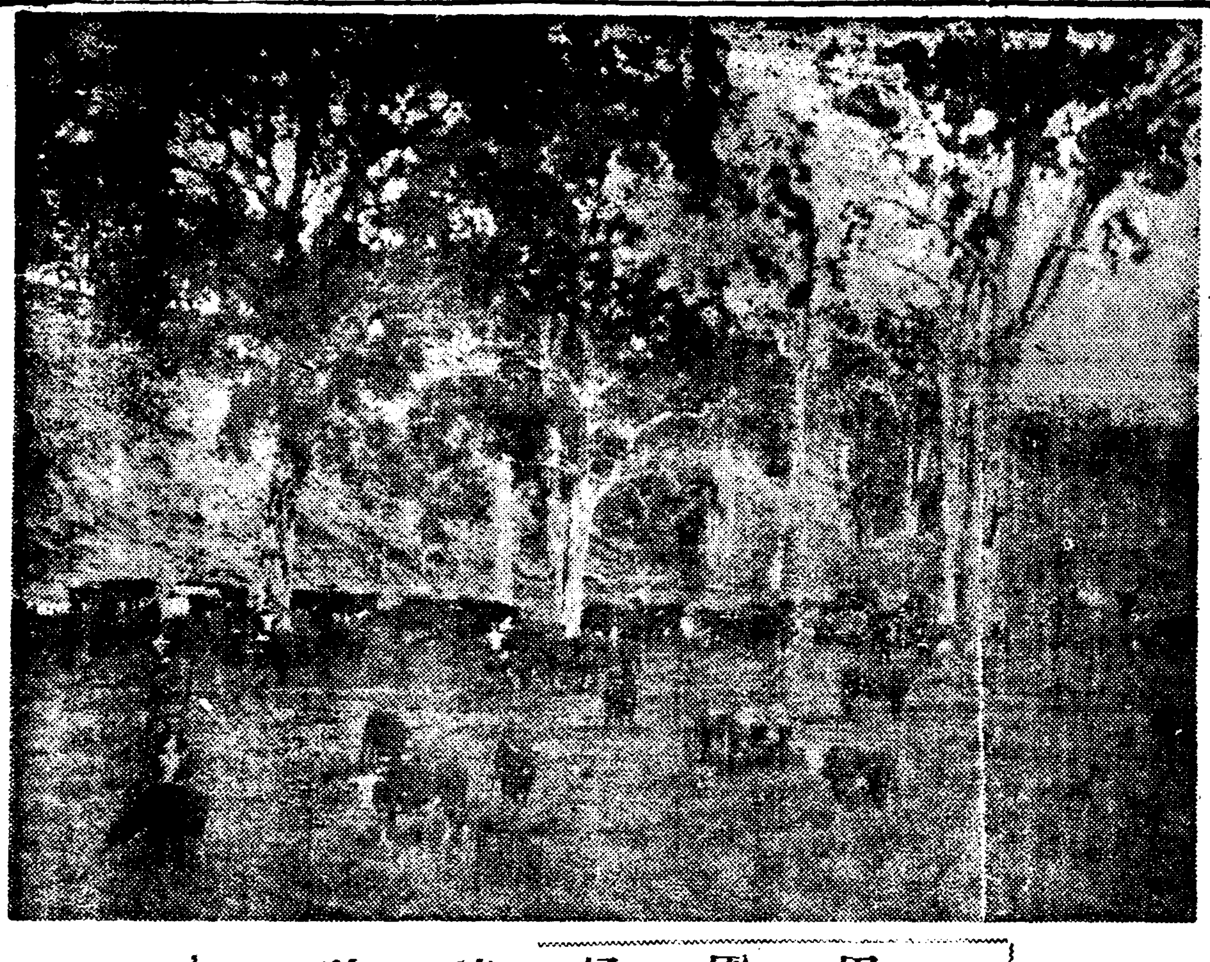
中宗年間의 北寺은 江陵金氏 [illegible] 살든 [illegible]이니 正德年間에 한창 繁榮할때 그一門內에 살은[illegible] 人人이 잇섯스며 또[illegible]洞에는 [illegible]相 月沙李廷龜가 살엇는데 그比隣엔 [illegible]洪[illegible]郞宅이 잇서섯다 [illegible]의 第四子 [illegible]月沙의 딸님에게 장가드러 兩家가 婚姻關係를 맷게되것도 서로 接屋連墻하야잇기 때문으로 그리된것이라 하거니와 [illegible]의長子는 有名한 永安尉洪柱元으로 곳宣祖大王의 딸님貞明公主를 尙하엿다 [illegible]으로 駱山을 끼고 내려가다가 梨花洞二番地에 다다치면 數丈의 巨岩이 웃둑서서잇고 그巨岩미테는 한줄기 淸泉이 솟사나는데 여기가 곳 노래로 詩로 만히 울픈 名所인 梨花亭터이란다 이梨花亭은 본대그主人이 누구인것과 또는 그創建이 언제된것인지 到底히 알길이 업지마는 그것이 오래것만은 推察할수잇다 中宗때文章書藝로

三絶의 稱이 잇든 靈川子 申潛은 有名한 申叔舟의 曾孫이라 그의 梨花亭詩에 此地米渠三十株、[illegible]、鷄林只有梨花樹、不見[illegible]歌鄕人、이것은 申潛이 [illegible]良時에 [illegible]이 되엇다가 [illegible]가 몰리는 바람에 [illegible]이되어 [illegible]을 빼앗기고 數十年[illegible]의 生活을 한後 풀려나와 녯날놀든 梨花亭에서 懷古의詩를 지은것이다 이詩에 依하면 이梨花亭은 中宗以前에이미 有名한것이며 亭名에 表示된것과가티 梨花樹를 만히 栽培하엿든 模樣인바 當時名士들이 이亭樹에모혀서 詩도지으며 술도 마시고 [illegible]를 불러다가 노래하고 춤도 추엇든것을 어렴풋이 推見할것이다

梨花亭 [illegible]더가 荒凉하게되던 오늘날도 오히려 [illegible]石의泉과泉水의淸이 사람[illegible]히끌만큼 되어잇거든 하물며 梨樹를 만히심거 꼿의艶麗한것까지 아울러잇든 녯날梨花亭은엇마나 [illegible]한 名所가 되엇것는가 지금 안저 그詩를 보고그景을 생각만해도 梨花亭이 [illegible]에 [illegible]한名所임을 首肯하게한다 그러나 現今엔 [illegible] 亭樹잇든자취조차 남아잇지 아니하며 그[illegible]의故老에게 물어야 아는이 드물고 그[illegible]를 [illegible] 十八日人[illegible] 이것이 잇슬뿐이드라 梨花亭에서 좀더가면 延安李心源의

一翁亭 이이 잇섯스니 亭子향은 그主人李心源의 別號가 一翁임으로써 그리한것이라 하거니와 다만 一翁亭이 오늘날 몃番地가 되어잇는지 未詳하나 金[illegible]老에게 드른즉 梨花亭터에서 멀지안흔곳에 잇섯다고한다 一翁李心源은 英祖때 사람으로 名門世族이니만치 相當히 벼슬도 하엿스나 高尙한그의뜻이 언제나 丘壑에잇섯슴으로 벼슬을 모다 내여노코 朝廷에서 물러나와 駱山미테 一翁亭을 세우고 詩酒와[illegible]로 晩年을 보낼새 그의著述은 一翁漫錄이 잇다한다 駱山기슭에는 名所古蹟이 만흐나 그것을 다적을수업고 오즉 [illegible]만을 나타내어 由來에 對해서 잠간

한마듸 말하고 끗[illegible]고저한다 傳하는말에 [illegible]大王께서 그아버님이신 [illegible]大王을 爲하사 [illegible](現城大學[illegible])[illegible]院에를 세우시고 [illegible]月[illegible]門을 通하옵서 月一次參拜하섯는바 孝誠이至極하신 正祖께서 이景慕宮近處를 繁昌하게 맨드시려고 駱山기슭인 蓮[illegible]에다가 市場을設하엿는데 거기는 온갓物品이 다 나지마는 中에도 나막신이 가장有名하승으로 오늘날까지 [illegible] 막신이란 俗談이 생기게 되엇다 한다。



★ 田園抒情詩 ★

『콜롬브스』의 日記發見

【모스코바發聯合郵信】『모스크바』의 夕刊紙『케체르냐야·모스크바』의 報道의依하면 『칼고롤』博物館에서 古文獻整理中 偶然히 米大陸의 發見者 크리스트파! 콜롬브스』의 日記가 珍品이發見 되엿다고한다

同紙의 記事에依하면 이日記는 表紙가 羊皮紙로서 海貝와 海草類의 模樣으로된 裝釘으로 하여서 『콜롬브스』의 航海日誌라고볼수잇는貴重한 물건이라고 한다

것장에는 獨逸文字로 『子島데이에그』를爲하야 『크리스토파―、콜롬브스』自身이記錄한 手記一四九二年八月三日』이라고햇다 이日記는 그가『바로스』港을 出發한日子와 符節을 合한것으로보아 出航과함께 記錄을 始作한것으로 推測된다

日記에는 긴『리본』이 달닌 封印이 捺印되어잇다 그러나 이 日記가참으로 틀님업는『콜롬보스』의 記錄한 眞物인가는 아즉 確證되지안헛다고한다

民謠研究 慶北民謠의 特異性 ⑦

金思燁

例一

다음노래는 삼(麻)삼으면서 부르는노래로 五月에서 七月까지 (陰曆)짜른밤에 하로終日들에나가서 勞働을한까닭에 疲勞하야 잠이라도 便히자야할것이지마는 그들一年입을옷감을 만들자면 夜業까지하여야되는形便이다. 處女들이 싀집을가면 싀집에서 이질삼할때 노래한마디 도못함은 다시업는羞恥로아러 꾹 노래를 배워가지고간다고한다. 이것이 婦謠의 發達을본 一大原因이기도한다. 이삼삼으면서하는노래는 各地方을따라다르고 저녁에하는노래 새벽녁에하는노래 食前에하는노래가 各己區別되여잇다 이에는 代表될만한 靑松地方에서 流行하는노래를든다

靑松盈德 진삼가래
우리아배 관솔패고
우리올배 관솔노코
이내나는 비비치고
우리兄任 나라치고
밤새도록 삼고나니
열손가리 반들추겨
닷손가리 반남앗네
安東洞內 열리洞內
洞里마다 訴事가자
암만업시 訴事가면
니이기나 나이기지
우리아배 吏房戶長
우리올배 東萊府使
끔방妓生 얼同生아

以上은 저녁에부르는노래

달은벌서 다젓는데
닭은어이 우우는가
잔말만은 싀어머니
이내잠을 또깨우네
眞寶靑松 진삼가래
寧海盈德 관솔가지
너캉나캉 웬情만아
아충저녁 따라드나
새붓집삼 질기는넘
사발옷만 입드란다

以上은 새벽녁에부르는노래

미수가리 걸머지고
山陽장을 건너가나
山陽놈의 人心바라
오든오문 바드란다

五六七月 짜른밤에
단장을랑 다못자고
이삼저삼 삼을쩍어
두무럼이 다써엇네
어린아해 젓달내고
큰아이는 밥달랜다
뒷집金同知 거동보소
나를보고 헷웃슴못네。

例二

朝鮮女子와 질삼과는 宿命的因緣을매저 終生不可避의 任務엿섯다. 물레(文來)를돌리면서는 自己내無限한 生活을 說話化한 물래노래가잇고 물래젓다가 조름이오면 그잠을 원망하는 잡노래가잇고 베틀질때는 베틀노래가잇다. 다음에적는베틀노래는 勞働謠中에서도白眉며 베틀(紡織機)의 各部具를形容한 技巧에이르러는 文學的으로 보드래도 上乘의것이다. 異名은 眞과 對照하야보아주기를 바란다.

뒤東山에 올나가서
딸밧을 조사내여
한편에는 집을짓고
한편에는 木花가라
봉지봉지 따여내여
오리오리 자사내여
모든물모술 빨아내여
굴은날은 굴따돌고
(굴게다돌고)
고은날은 곱따돌고
(곱게다돌고)
베틀한상 거러가주
베틀놀때 전혀업서
左右한양 둘너보니
우냥강이 비엇고나
우냥강에 베틀노아
압뒤다리 놉히노코
디뒤다리 낫기노코
([illegible])
가르새라 버튼양은
靑龍黃龍 버텻고
부태라 도도양은
서울이라 석가산에
(三角山)
허리안개 두른듯고
말꼬라 차는양은
하늘에 무산仙女
애기도령 딸에안고
석하산에 노는듯고
북나드는 저지상은
서울이라 금대밧에
금빼들키 알을나코
들낭날낭 하는지상
바디집 치는양은
서울이라 長安안에
잡수바둑 치는듯고
잉어에때는 三三兄弟
눌림대는 호부래비
任日장천 술마던고
헌리노는 지생이요
나풀나풀 나붓대는
李太白이 술잔들고
勸酒하는 지생이요
살굼살굼 사치미는
西山에도 설찬덧고
(날뛰는것갓고)
南山에도 설찬덧고
龍頭마리 우는소리
구시월 시단풍에
귀이리기 우는덧고
도루마리 눕는양은
七八月 쿵넙지는지상
미신째기 목을달고
울노가면 降服하고
니리오며 도루마리
쿵 질 사
저 절 쿵 뒤 눕 고
헙대밥대 지는양은
강념도령 활살인가
이끌저끌 잘도지네
다짜내네 다짜내네
금자한자 다짜내네
압내물에 싀거다가
뒷내물에 히여내여
도둘陽地 은 즁 에
사흘나흘 바래가주
다새여새 푸새해여
(五六日)
이려들에 다듬해서
(七八日)
징념도포 말나가지고
시가시게 서려내여
시당새기 당아가주
시실경에 언저노코
밀창문을 밀처노코
임恣門을 바라열고
저기가는 저선비야
우리선비 안오든가
오기사 오지만도
七星板에 실여오데

(여기서 歌者는 우는 形容을한다)

*****『모스크바』大劇場의 絃樂古器『코렉순』*****

【모스크바發聯合郵信】『모스크바』의 보리쇼이』劇場內에는 『바이올린』과 『세로』의 名器로 만든『콜렉숀』이 잇다。이것은 文部人民委員으로서 또는 文學評論家로서 有名하는 故『루나찰스키』氏가 苦心蒐集한結果로된것인데、果然 音樂의나라 露西亞全土로부터 『쏘베―트』權力의 威令으로가지고 蒐集한것인만큼 『바이올린』製作에잇서서는 古今無比라고하든 『스트라듸바리스』의 作品으로부터 『베르리』 『가브아르네리』等等의 作者는 勿論하고 稀代의名器들이라。그中에도 『스트라듸바리스』의 遺作 『알레산더―』一世秘藏인 『가부아르네리』作 『바이올린』等은 愛好家의 流涎을 不禁케하는 名器이다。

『보르쇼이』劇場當局에서는 大演奏會와 記念音樂會等이 잇슬때、一流『바이올리니스트』와 『체리스트』에게는 언제던지 이名器를 貸與해서、藝術家의天稟을 더욱遺憾업시 發揮식히도록 努力하고잇다。

『코렉순』의 管理하는『쏘베―트』一流의『바이올린』製作者『비탈케』氏가 맛기로하엿는데 同氏는 古名器의構造를 科學的으로研究한結果 最近에와서는 此等과何等遜色이업는音色을 내는優秀한 『바이올린』을 製作하게되엿다고한다

江都遊記……(四)
風雨七百年

鷺山 李殷相

江都의大動脈이되어 흘러나리는 東洛川!내물을 끼고 더듬어 黃昏에야 邑으로 차자들어가 旅舍를 定하고서、黃粟飯기다리는동안 窓에지혀 見子山저문빛을 바라봅니다。 밤! 旅舍의 내房 燈불아래는

(主) 人과나그네 맛자리 물러안저 古都史譚을 이야기하기에 時間가는줄을 모룹니다。

三更이 넘어、서로다 헤어지고、그무는 燈불마저 나추고서 殘夢한몸을 木枕한개에 依託하야 누웟스나 七百年 江都風雲이 어지러히 나타나 多感한나그네의눈에는 잠이오지를 아니합니다。

木枕을 세워다 뉘엇다 마침내 일어안저 主人에게서 빌려온 江都志의 冊장을 넘깁니다 實로 江華의歷史는 悲劇아닌者가 업습니다。멀리 檀君의聖蹟은 잠깐 비켜두고、麗朝以後로 七百年에 크한 우리史實은 눈물없이 적을수가 업슬것입니다

(적) 이미 눈물로 힘물이라 또한어찌 눈물업시 읽을수가 잇겟습니까。

그러면 아마 물으실것입니다。무엇이 눈물나는 歷史이냐고。

忠獻의掌中에걸려 이곳으로 放逐되엇던 高麗의熙宗 그가一國의帝王으로서 六石米에 齎命을 連해가야만하던 그일이 슬픈일인가。

蒙兵에 쫏겨 高麗高宗이 이곳으로 遷都하고、當時에 民衆의號哭이 하늘에 사모치다하니 그일이 슬픈일인가。

그러치안호면 世祖의때 無罪한忠臣의목숨이 끈허지던날、安平大君의父子가 이곳으로 쫏겨나고 마침내 賜死를 바덧는 그일이 슬픈일인가。

혹 또는光海君의 橫禁에걸려 [illegible] 이곳으로 [illegible]

(慈) 하게도 죽임을當한 八歲兒永昌大君의일이 슬픈일인가。

眞一 그도아니면 丙子의亂에 江華가 陷落되가 죽엄과 사로잡힘이 헤일수업는 그일이 슬픈일인가。

또혹은 壯志를 못이루고 가버린 崔瑩의後孫들이 이곳에가치어살던 그일이 슬픈일인가。

그것도아니라면 저丙寅辛未의 洋擾와 丙子年修好條約의 裡面에 들어잇는 近代의 일들이슬픈일인가

네 올습니다 그게다 슬픈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한가지 한가지 小說가튼 그事實들을 가리처 슬프다함은 아닙니다。

(지) 오늘날 우리의 正明한 눈으로보면 난날의 朝鮮은 國防도업섯고 政治도업섯고 다고하여도 過言이 아닐줄을 압니다。

적게로는 한사람의 悲慘한 運命 크게로는 國家에 寒日이업서던것 그리하야 恥辱의 昨年은 悲哀의 今年을낫코 悲哀의 今年은 不幸의 明年을 나하논 것입니다

耿耿한 燈불아래 말업시 端坐하야 고요히 눈물감고 千古의일을 생각하다가 문득 듯노라니 蕭蕭한 밤비소리―孤島에 내리는 가울밤 비소리가 옷가슴 속속이 저저듭니다

나는 이 괴로운 밤비소리를 아니들을래야 아니듯지 못하는『비소리에 捕虜된者』가 되엇습니다 또한 나는 이 비소리를 들어야만할

(義) 務를 가진것도 갓습니다。그것은 이 비소리가 다른데서 듯든 尋常한 그것과는 갓지안키 때문입니다

七百年 비바람이
이자리에 쓸어간
그제마다 원통한
울도록 울엇거늘
뉘눈물 상긔도남아
밤비되여 뿌리는곳。

黑風 【158】

韓龍雲 作
金熊超 畵

결혼 1

왕한은 날마다 혁명당본부의 일을 보게되얏다 당시의 혁명운동의 상태는 실로 위미부진하얏다 일반적으로 혁명의 사상이 보급되지 못하야서 단결이 굿지못한중에 관변의탄압이 심하고 운동의 자금이 업서서 모든일이 진전되지 아니함으로 때만 몃사람의 지력으로 겨우겨우 현상을유지 하는중이엇다 왕한은 여러가지 일을 위하야 매일 가티 땀을 흘니고 분주히 다니다가 저녁에야 여관으로 도라오면 자연히 생각이 괴롭고 쓸쓸하야서 매양 창순을 찻게되는대 창순이도 왕한의 정경을 살피어서 될수잇는대로 그를 위로하기에 마음을 다하얏다 왕한은 그러한 생활만을 날마다 날마다 되푸리하고 잇는것이 정신상으로도 쓸쓸하고 생활방식으로도 자미가 업슬뿐아니라 창순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을 따라서 깁허가므로 될수잇는대로 속히 결혼을하야서 가정생활을 하고십헛다 그러나 왕한과 창순은 열렬한 사랑을 계속하는중에 정신상으로는 조금도 틈이업는것을 서로 밋고잇스나 결혼에 대한말은 어느편에서든지 입을 여러본일이 업섯다

하로는 왕한이가 전과가치 혁명당본부로부터 여관에 도라와서 저녁밥을 마치고 안젓는대 창에비치는 달빗이 정히 아름다웟다 왕한은 창순을 차저가서 결혼에대한일을 결정하라고 생각하얏다 그리하야 옷을 입는중에 다른넥타이를 차지랴고 상자를 들추다가 우연히 사진첩을 발견하얏다 그 사진첩을 무심히 들추어 보는것이 이상하게도 나이야가라 폭포에서 콜난이와 가치 백인 사진이 나왓다 왕한은 그것을 보자마자 급격한 충동을 바더서 마음이 흔들니면서 사진첩이 손으로부터 떠러지는 줄을 깨닷지 못하얏다 왕한은 그 사진을 집어서 다시 보앗다 고개를 자기의편으로 조금 돌니는 못하야서 칠분의측면(側面)으로적은우슴의 흔적이 사라지지 아니한채로 분명하게 백혀진 콜난의 얼굴은 놀난마치 어엽부게 뵈엿다 창순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비교하야 보는때에는 용이하게 우열을 가질수가 업섯스나 결국하고 청초한것으로는 콜난이가 더욱 어엽부듯하얏다 그리하야 왕한은 콜난에게 대한일을 여러 가지로 연상하게 되얏다 화생친목회에서 처음으로 맛나서 조혼이상을 바든뒤에 자기를 차저와서 교제 하든일과 나이야가라폭포에 가치가서 폭포를 구경하다가 『나이야가라 폭포의 우름은 언제나 그칠까요』 하는 왕한의 뭇는말에 『우리의사랑이 끈친다면 폭포의우름도 그치겟지오』하고 대답하든 콜난의말소리가 아즉도 귀에서 사라지지아니한듯 하얏다 그리하고 미국에서 작별할때에 콜난이가 자기에게 결혼을 청구하든 모든 광경과 자기가 결혼문제에 대하야 거짓말로 사피하다가 끗호로 『어느 시간까지만 기다려주서요』 하든 말의 남은 매아리가 아즉도자기의입에서 떠러지지 아니한듯 하얏다 왕한은 콜난에게 대한일을 생각할때에 무슨죄나 지은 사람처럼 양심의 가책을 바더서 스스로 괴로워햇다

왕한은 고개를 들어서 천정을 처다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듯 하더니 돌연히 사진첩을 덥허서 상자속에 너엇다 그리하고 넉잃은 사람처럼 안젓다가 다시 상자를 열고 사진첩을 내어서 콜난의 사진을 차저내엇다 그리하야 전등밋헤 가까히 대이고 자세히 보앗다 사진은 의연히 평시와가티 자기를보고 깃버하는듯 하얏다 왕한이도 다시 조흔마음으로 콜난의 사진을 대하얏다 사진의 한편에 몬지가 무든듯 한것을 손수건의 깨끗한 부분으로 고요히 시첫다 왕한은 그사진을 볼수록 아름답게 뵈엿다 숨엇든 정열이 그사진으로 부터서 솟어나오는듯하얏다 왕한은 그러한 미인을 사랑하지 못하는것이 불행이라는것보다 참어 다른남자에게 사랑을 빗게한다면 그것이 더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얏다

『아! 미인이다』

하는 소리업는 말을 연발하는 왕한은 그사진에 고요히키스하얏다 마치 여관뽀이가 우편으로온 편지하나를 드리던

淋疾

實驗推奬
京都帝國大學醫學部皮膚泌尿科 醫學博士 片山義郎先生
東京市電氣病院泌尿科部長 醫學博士 橫尾守中先生

바로―루의獨特한性狀!!

本劑바로―루는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에서、敎授[illegible]醫學博士及小田切理學士等이發明完成한「金屬오루가노조루」製法을應用하여同研究所內에서特許製法인理化學的操作으로써銀을마이소―루白檀油中에極微粒코로이드狀에다가더욱濃厚하게分散하여서된銀오루가노조루製劑입니다이것은처음으로銀이가진바强力한殺菌性消炎力을內服化하는데成功한것으로이야말로治療界에잇서서劃期的發明으로써專門家가다가치絶讚推奬하는바이다。그런데바로―루는다갓치銀製劑라할지라도在來의局所劑와는其作用을달리하는、獨特한銀內服新藥이라할수잇읍니다

그 特殊醫治作用!

卽이바로―루中에包含된銀은在來의銀과는判異하야銀의分子를限外顯微鏡으로서도認할수업는專門家가그銀粒子를檢査하여恒常一定量의品質優秀한他人의模倣할수업는眞性코로이드銀을研究所에서創製한것입니다 이코로이드銀의內服으로因하여銀이體內에吸收되야迅速히滲透作用을發揮하매부라운運動의特殊活動에依하야尿道의粘膜、腺窩內病巢深部는勿論粘膜組織內、攝護腺의淋菌、婦人의附屬組織內、子宮頸管內等의深部에直接殺菌作用을나타내어이淋菌膿球의破壞殺滅을顯微鏡下에서볼수가잇읍니다。그뿐아니라마이소―루白檀油의大部分은구리큐른酸及硫酸과抱合하여無作用이되여尿로나와游離하여尿道의防腐消毒作用을하되粘膜을刺戟치안코疼痛增加함이업시銀의作用과아울너淋疾治療의目的을達할수잇읍니다。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創製

淋疾患者에對한 京大附屬病院 片山博士實驗

京都帝國大學附屬病院皮膚泌尿科醫學博士片山義郎先生은附屬大學病院에서바로―루를患者에게주어唯一의治療로하고그效果를觀察한즉慢性急性한尿가稍微或은淸澄해지고顯微鏡的으로淋菌의消失하든日數가短縮되고白檀油만으로써治療한든經驗에比하여훨신效果가增强케되엇다。特히慢性患者에잇서서는尿中의淋性絲는本劑의服用으로써分明히減少되며尿가淸澄、淋菌消失되는治療成績을어든바는本劑의特殊한點입니다

◇바로―루는全國著名藥店에有함 바로―루라指名하시옵 萬一品切되는때는直接弊社로注文하시면送料本社負擔하겟습 (前金注文時는送料不要、郵稅代用도無妨)

內服淋治劑 製法特許

バーロール (바로―루)

文獻進呈 片山博士、橫尾博士의實驗報告希望者는每回葉書로發賣元에申込하시옵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 內地十五錢

發賣元 大木五臟圓本舖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illegible] 大阪支店 [illegible]